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

소준철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

연구책임

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전공
박사과정

연구진

서종건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서울시 폐지수집 여성노인 빈곤실태 심각 생애지속적 빈곤 해소할 복지정책 필요

요약 1. 여성노인의 삶: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노인 인구는 총 1,243,829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독거노인은 253,302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인구 중 절반 이상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특별시 여성 인구는 5,260,580명으로 총인구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2014년 현재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가구주 중 60대 이상의 비율도 27.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시기에 따라 변했다. 해방 이후 임시구호사업 중심이었던 노인 복지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현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노인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놓음으로써 연령별 문제나 젠더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노인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인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 빈곤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인 빈곤은 특히 심각한 편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성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빈곤은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현상이 노인 빈곤의 문제와 연결된다. 여성노인의 빈곤은 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유지되고 강화되는, 이른바 생애지속적인 특성이 있다.

요약 2. 폐지수집은 노동인가?

서울시는 자원순환 정책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 산업에 끊임없이 매개하고 있다. 아파트와 공동주택, 사업장이 밀집한 공간은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공간은 다르다.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데다 정돈되거나 계획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공간은 폐지수집 노인들의 작업 공간이자 일터다. 정책과 제도의 빈틈이 만들어 낸 변종의 직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재활용품 산업은 ‘배출→수집/운반→처리’의 3단계에 각 주체가 매개되어 있다. 서울시의 정책은 두 지역의 공간 구성에서 차이에에서 발생하며, ‘제도권의 영역’과 ‘비제도권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비제도권의 영역’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폐지수집 행위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제도권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고물상의 법적 지위 때문이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수집행위는 수집/운반 과정에서 제도 바깥에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폐지수집 노인과 관련하여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폐지를 팔고 받는 가격이다. 최종 구매자인 제지업체가 정한 가격에서 중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들을 뺀 상태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물가지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한 상황인데도, 폐지 가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넙마주이라는 ‘직업’은 여전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노인들이 새로운 넙마주이로 등장하였다. 노인들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배출과 수거 사이에 폐지나 돈이 될 만한 물품을 주워간다. 특정한 공간에 그/녀들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바로 공동의 쓰레기통이 없는 공간이다.

폐지수집 행위는 힘든 일이지만, 분명 그/녀들에게 직업이다. 재활용품 산업의 참병을 자처하고,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꾸며 노동하며,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제도와 산업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위험한 직업이다. 이 현상은 노인이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취업 노인들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산업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노인에게 능력에 기반을 둔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요약 3. 아현지역에 대하여

마포구의 아현동, 서대문구의 북아현동과 충현동을 통칭하여 아현지역으로 부를 것이다.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생활을 기준으로 할 때, 주거지역(Ⅱ~Ⅳ)과 수거지역(Ⅴ, Ⅵ, Ⅶ, Ⅷ, Ⅸ), 기타지역(Ⅺ, Ⅻ, Ⅼ)으로 나눌 수 있다. 아현지역은 다른 집단들이 한데 모여 있으며, 주택양식에 따라 생활양식이나 사회 경제적인 위치가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인구가 각각 313,216명과 380,502명이다. 이 가운데 노인 인구는 각각 44,506명과 46,255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여성노인의 비율은 각각 25,680명과 26,746명으로 나타났다. 아현지역(마포구 아현동과 서대문구 북아현동과 충현동)은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인 노인 인구의 비율은 이 지역의 빈곤 형태가 노인 빈곤의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 4. 아현지역의 복지체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노인정책사업은 크게 건강 분야, 안전 분야, 돌봄 분야, 일자리 분야, 여가·문화 분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대체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여성노인에 대한 고려가 그다지 많지 않고 정책사업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분류 체계를 꼼꼼히 할 필요성이 있다.

서대문구·마포구의 노인복지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의 사업들의 내용은 중복되는 것이 많은 편이다. 각 구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은 크게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지원서비스, 서울재가관리사사업이 있다.

연구 대상지였던 충현동·북아현동·아현동의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종합복지관,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복지관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종합복지관과 아현실버복지관이 있다. 경로당은 3개의 동을 총합하여 10곳이 존재

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북아현동에 2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데이케어센터는 아현동과 충현동에 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약 5.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

“임금노동 시장이나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빈곤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재활용품 수거노동”이다.

아현지역 역시 사당동에서처럼 수없이 많던 가게의 업종이 사라지는 광경을 살펴볼 수 있다. 더군다나 노인이자 여성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다. 빈곤한 상황과 빈곤의 재생산 구조가 그녀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 공간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방식은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문전수거 방식으로 내놓은 단독주택의 폐지나 재활용품 더미에서 선별하는 것이다. 둘째, 상업지구의 근처에 쌓인 재활용품을 골라내어 수집하는 방식이다. 셋째, 재활용정거장을 뒤적여 재활용품을 골라내어 수거하는 방식이다. 넷째, 여성노인들이 분리수거망이나 쓰레기 더미를 뒤적여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수거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남의 일을 해주고 대가로 폐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도움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방식이 있다.

운반수단은 다양하다. 운반수단이 없거나, 노인용 보행기, 유모차, 손수레 등으로 다양하다. 여성노인들은 리어카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리어카에 싣는 재활용품의 무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만 끌 수 있다.

아현지역의 새벽은 여성노인들과 택시들만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여성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은 새벽녘이다. 이처럼 골목길의 위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생활하며 생체리듬이 깨지는 데서 발생하는 건강의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느 시간에 잠을 자고, 일을 하느냐’는 폐지수집에 나선 여성노인들의 빈곤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폐지를 줍는 노인의 수가 늘고, 청·장년층, 혹은 중국동포까지도 폐지수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유입은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사실상 경

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이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운반해 온 폐지와 운반수단을 보관하는 일이다. 주거하는 공간에 따라 방식이 다르다. 첫째, 집 바깥에 폐지를 보관한다. 둘째, 현관 입구에 보관하기도 한다. 셋째,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하여 자투리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운반수단 채로 집 바깥에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폐지의 ‘보관’은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요약 6. ‘복지 지원’에 대한 인식의 양면성

여성노인들의 과거 경험은 비슷하다. 학업 기회의 단절은 곧 사회 진출의 단절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뷰이들은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배우자에 의존하는 것은 비단 소득뿐만이 아니다. 배우자의 일터가 바뀌면 여성노인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반강제적으로 바꾸어야 했다.

물론 여성노인들이 하나의 공통된 집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집의 유무, 즉 표면적으로 보이는 빈곤함과 빈곤하지 않음의 차이는 이들에 대한 사회 복지 지원에서 차이를 낳았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여성노인들의 폐지 수집에 대한 인식과 접근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했다. 또한 신체적, 사회적 차이가 여성노인들의 폐지 수집 과정과 이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여성노인들은 사회복지 지원에 대해 어려움과 불편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이는 과거 빈곤과 사회적 발전을 체험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노인들은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빈곤 또는 경제적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인터뷰이는 사적인 도움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폐지 수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집을 구하는 것, 현재 생활하는 것까지 많은 부분을 사적인 도움에 의존했다. 사적인 도움은 종교, 개인 네트워크 등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인 도움은 권리가 아닌 시혜의 성격이 강하기에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도움의 손길이 끊기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목차

01 여성노인의 삶: 서울시의 경우	2
1_서울특별시 노인의 현재 상황	2
2_서울특별시 여성노인의 통계적 특징	8
3_노인의 문제는 빈곤뿐인가?	12
02 폐지수집은 노동인가?	18
1_재활용품 산업과 정책	18
2_재활용품 산업의 구조	23
3_폐지가격의 결정과정	28
4_노인의 폐지수집이라는 직업	31
03 아현지역에 대하여	36
1_아현지역의 공간적 구성	36
2_아현지역의 인적 구성	41
04 아현지역의 복지체계에 대하여	44
1_서울특별시의 노인정책사업	44
2_서대문구·마포구의 노인복지사업	49
3_충현동·북아현동·아현동의 노인복지시설	55

05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	60
1_진입 1: 나이듦과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60
2_진입 2: 지역상권의 변화와 기존 상권의 쇠락	60
3_수집: 쓰레기더미를 헤치는 사람들	63
4_운반: 도로를 걷는 사람들, 밤길을 걷는 사람들	70
5_보관: 도둑질의 위험	75
6_판매: 정기적 판매와 간헐적 판매	78
06 ‘지원의 필요’가 가진 양면성	82
1_참여자 소개 및 연구 방법	82
2_경험을 바탕으로	83
3_빈곤함과 빈곤하지 않음이라는 차이	87
4_빈곤과 복지에 대한 인식	92
5_소결	96
07 정책 건의	98
참고문헌	101

표

[표 1-1] 노인에 관한 정의	2
[표 1-2] 서울특별시 노인 인구 현황 (내국인)	4
[표 1-3] 서울특별시 60세 이상 인구 소득 수준 (내국인)	5
[표 1-4] 서울특별시 독거노인 현황	6
[표 1-5]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시설 현황	7
[표 1-6] 서울특별시 남·여 인구 추이	8
[표 1-7] 연령계층별 여성인구 비율	9
[표 1-8] 서울특별시 여성노인 인구 현황	10
[표 1-9] 서울특별시 여성 가구주 비율	10
[표 1-10] 서울특별시 연령 · 계층별 여성 가구주 비율	11
[표 1-11] 가구주 성별 · 연령별 빈곤 가구 비율	15
[표 3-1]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전체 인구 및 노인 인구	41
[표 3-2] 아현지역의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내국인 인구	41
[표 3-3] 아현지역의 총수급자 수와 종류별 수급자 수	42
[표 4-1] 서울특별시 노인 건강 분야 사업	44
[표 4-2] 서울특별시 노인 안전 분야 사업	45
[표 4-3] 서울특별시 노인 돌봄 분야 사업	46
[표 4-4]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분야 사업	47
[표 4-5] 서울특별시 노인 여가·문화 분야 사업	48
[표 4-6] 서울특별시 분류에 따른 자치구 복지 사업 분류	49

[표 4-7] 충현동·북아현동 경로당 현황	55
[표 4-8] 충현동·북아현동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56
[표 4-9] 충현동·북아현동 데이케어센터 현황	56
[표 4-10] 아현동 경로당 현황	57
[표 4-11] 아현동 데이케어센터 현황	57
[표 6-1] 연구 참여자 현황	82

그림

[그림 2-1] 서울특별시 ‘자원순환’의 경로	23
[그림 2-2] 폐지가격의 결정 구조	28
[그림 2-3] 폐지가격의 동향(2005~2015년)	29
[그림 3-1] 아현지역의 공간	36
[그림 6-1] 동네가게의 한켠	62
[그림 6-2] 쓰레기 배출의 예	65
[그림 6-3] 재활용정거장의 모습	67
[그림 6-4] 별다른 도구가 없는 노인	70
[그림 6-5] 노인용 보행기를 끄는 노인	70
[그림 6-6] 유모차를 끄는 노인들	70
[그림 6-7] 집 바깥에 폐지를 보관한 모습	75
[그림 6-8] 입구 보관	76
[그림 6-9] 자투리 공간에 보관한 모습	76
[그림 6-10] 폐지를 내놓는 과정	77
[그림 6-11] 골목길에 운반수단과 폐지를 보관한 모습	77

01

여성노인의 삶: 서울시의 경우

- 1_서울특별시 노인의 현재 상황
- 2_서울특별시 여성노인의 통계적 특징
- 3_노인의 문제는 빈곤뿐인가?

01 | 여성노인의 삶: 서울시의 경우

1_서울특별시 노인의 현재 상황

1) 노인의 전반적인 정의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란 개념은 노인이 갖는 몇 가지 특성으로 규정된다. 사회과학적인 조사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책 및 행정적인 편의를 위하여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에 도달한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의한다. 물론 여러 학자가 정의하는 노인의 연령적(年齡的) 경계는 그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점이 있다(하지경, 2010).

한편 법령에 나타나는 노인의 정의는 조금씩 다르다. “노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만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를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50세 이상~55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으로 노인의 빈곤과 연관이 있는 “국민연금법”은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을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인 자를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노인에 관한 정의

노인 관련 법령	노인(고령자)에 관한 정의
“노인복지법”	만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는 55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
“국민연금법”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
“기초노령연금법”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5세 이상

한편 해외 국가들은 경우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강미희, 2013). 이는 독일에서 1989년 6월 22일 제정된 『양로 및 폐지에 관련한 연금보험법』에서

노령연금 수혜자의 연령을 65세로 규정한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유용식 외, 2012; 강미희, 2013).

법률적이고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을 연령적 정의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다르게 말하자면, 노인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과 개념은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과거 농경시대에서는 환갑(還甲)이 노인을 규정하는 데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대에는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연령의 가변적(可變的)인 정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체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언급한 대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대에서 노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복지 및 서비스의 변화와 확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서울특별시 노인 현황

(1) 서울특별시 노인 인구 현황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인구는 2015년 현재 10,349,492명이다(서울특별시 통계, 2015). 등록 외국인 270,642명을 제외하면 내국인은 총 10,078,850명으로 나타난다. 이 중 서울시의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243,829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노인 인구 중 65세에서 69세까지의 노인, 즉 고령화로 들어서는 노인 인구가 444,197명으로 가장 많다. 70세에서 74세까지의 노인은 350,210명, 75세에서 79세까지의 노인은 230,398명, 80세에서 84세까지의 노인은 124,572명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은 94,452명으로 나타났다.

[표 1-2] 서울특별시 노인 인구 현황 (내국인)

(단위: 명)

연령대	계	연령대	계
55세~59세	776,218	80세~84세	124,572
60세~64세	568,396	85세~89세	60,477
65세~69세	444,197	90세~94세	22,790
70세~74세	350,210	95세~99세	6,293
75세~79세	230,398	100세 이상	4,892

주: 서울특별시 자료

서울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003년 6.5%에서 2013년 11.2%로 증가하였으며(서울시 통계, 2013), 2015년의 통계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12.3% 이상이 노인 인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화 사회가 전체 인구의 7%를 기준으로 하며 2단계인 고령 사회의 기준이 전체 인구의 14%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서울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의 문턱에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추후 10년 안에 노인 인구에 포함될 55세에서 64세의 연령대를 생각하면 노인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2020년에는 고령 사회, 2027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 통계, 2013).

(2) 서울특별시 노인 소득 현황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반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현황은 빈곤의 모습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서울특별시의 60세 이상 인구 소득은 [표 1-3]과 같다.

서울시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득이 5만 원 미만은 21.7%,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은 26.9%,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은 25.8%로 조사되었다. 2015년 1인 중위 소득 기준인 156만 2,337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은 32.4% 정도로 나타난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3.4%로 조사되었다. 2015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61

7,281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서울시 60세 인구 가운데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21.7%나 있다.

【표 1-3】 서울특별시 60세 이상 인구 소득 수준 (내국인)

(단위: %)

소득 수준	계	소득 수준	계
50만 원 미만	21.7	200만 원~250만 원 미만	8.1
50만 원~100만 원 미만	26.9	250만 원~300만 원 미만	3.2
100만 원~150만 원 미만	25.8	300만 원 이상	5.5
150만 원~200만 원 미만	15.6	소득 없음	3.4

주: 서울특별시 자료

서울시 통계의 조사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환갑이 곧 노년으로 인식된 과거 시선이 연속된 지점이다. 물론 실제로 정년 세대의 기준에 맞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노인의 법적 기준이 사실상 65세 이상인 것을 고려하며, 55세에서 65세 이하에 이르는 연령대를 이른바 시니어(Senior) 세대로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통계 기준은 재조정되어야 하며,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3) 서울특별시 독거노인 현황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려할만한 것이 독거노인의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한 통계이다. 2013년 현재 서울시의 독거노인은 총 253,302명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76,353명, 여성은 176,949명이며 65세에서 79세까지의 고령자 중 189,733명, 80세 이상 고령자 중 63,569명이 독거노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거노인 중 소득수준이 일반적인, 즉 평균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숫자는 188,353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권자 노인은 44,015명, 저소득 노인은 20,934명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저소득 노인의 비율은 전체 독거노인의 29% 수준이다.

[표 1-4] 서울특별시 독거노인 현황

(단위: 명)

	남성	여성	합계
독거/기초수급	12,804	31,211	44,015
독거/저소득	5,924	15,010	31,211
독거/일반	57,625	130,728	188,353
합계	76,353	176,949	253,302
	65~79세	80세 이상	합계
독거/기초수급	31,512	12,503	44,015
독거/저소득	15,099	5,835	20,934
독거/일반	143,122	45,231	188,353
합계	189,733	63,569	253,302

주: 서울특별시 자료

(4)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시설 현황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나 설비와 건조물(建造物) 등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복지주택이 대표적이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며,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및 노인교실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포함한다.

2014년 현재 전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총 443개소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4,814개소가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5,66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797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총 28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이 중 서울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총 44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총 446개

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표 1-5]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시설 현황

	시설 수	입소현황		종사자 수
		정원 (분양)	현원 (입주)	
노인주거복지시설 총계	443	20,110	14,001	3,514
- 양로시설	272	13,903	9,219	2,513
- 노인공동생활가정	142	1,173	749	397
- 노인복지주택	29	5,034	4,033	604
노인의료복지시설 총계	532	14,222	13,177	8,579
- 노인요양시설	176	11,109	10,274	6,517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56	3,113	2,903	2,062
노인여가복지시설 총계	3,743	-	-	1,234
- 노인복지관	74	-	-	1,234
- 경로당	3,298	-	-	-
- 노인교실	371	-	-	-
재가노인복지시설총계	446	5,378	8,471	5,071
- 방문요양서비스	94	-	1,977	1,811
- 주·야간보호서비스	233	4,940	4,485	2,243
- 단기보호서비스	44	438	360	205
- 방문목욕서비스	65	-	688	779
- 재가지원서비스	10	-	961	33

주: 서울특별시 자료

2_서울특별시 여성노인의 통계적 특징

1) 서울특별시 여성인구 추이

2015년 현재 서울의 총인구는 10,369,593명이다. 이 중 남성이 5,109,013명으로 49.3% 수준이며 여성이 5,260,580명으로 50.7%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14년의 통계조사(경인 지방통계청, 2014)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6] 서울특별시 남·여 인구 추이 (단위: %)

서울남성	연도	서울여성	연도
50.2	1980	49.8	1980
50.3	1990	49.7	1990
50.4	2000	49.6	2000
49.9	2005	50.1	2005
49.4	2010	50.6	2010
49.3	2011	50.7	2011
49.3	2012	50.7	2012
49.2	2013	50.8	2013
49.2	2014	50.8	2014

주: 경인지방통계청, 2014 인용 및 참조

서울시의 여성 인구 비율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4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05년 50%를 돌파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여성인구 비율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서울특별시 연령계층별 여성인구 현황

2014년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인구의 고령화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2014년 서울지역 연령계층별 여성인구의 비중은 '60세 이상'이 전체의 18.0%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30대(16.9%), 40대(16.3%), 50대(16.3%)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서울 여성인구의 비중은 1990년 6.8%에서 2014년 18.0%로 1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 이후 서울 여성의 연령계층별 인구 추이를 보면, 30대 이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기] 연령계층별 여성인구 비중

(단위: %)

연령 연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1990	15.1	18.6	22.0	18.0	12.2	7.3	6.8
2014	7.6	9.7	15.2	16.9	16.3	16.3	18.0

주: 경인지방통계청, 2014 변형

2014년 30대 이하 연령층 비중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인구의 고령화 이외에 출산율의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실제로 10대 미만의 연령층은 1990년 15.1%에서 7.6%로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60세 이상의 비중이 6.8%에서 18.0% 상승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여성노인 인구 현황

2014년 현재 서울시의 여성노인 인구의 비율은 1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경인지방통계청, 2014). 서울시는 2002년 고령화 사회(7.2%)로 진입하였고, 이후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65세 이상 여성노인 인구의 비율은 1990년 4.6%, 2000년 6.5%, 2010년 10.4%, 2014년 12.4%로 상승하였다. 2014년의 실제 여성노인 인구는 65세 이상 63만 7천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 노인은 41만 7천 명으로 파악되었다.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도 13만 1천 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서울특별시 여성노인 인구 현황

(단위: 명, %)

연령 연도	65~69세	70~79세	80세~	고령인구 비율	(전국 여성)
1990	239	147	36	4.6	6.4
2000	327	204	56	6.5	9.0
2010	529	338	101	10.4	13.1
2014	637	417	131	12.5	14.8

주: 경인지방통계청, 2014

4) 서울특별시 여성노인 가구주 현황

2014년 현재 서울시의 총가구 수는 약 360만 가구이며, 이 중 여성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는 약 109만 가구로 30.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여성이 가구주인 가정의 비율은 2000년 19.4%, 2010년 27.8%, 2014년 30.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3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경인지방통계청, 2014).

[표 1-9] 서울특별시 여성 가구주 비율

(단위: 천가구, %)

	총가구	여성 가구주 비율	여성 가구주	남성 가구주
2014 (전국)	18,458	27.9	5,147	13,310
2000	3,121	19.4	606	2,515
2010	3,500	27.8	974	2,527
2014	3,600	30.3	1,090	2,510
2020	3,798	33.4	1,269	2,530
2030	4,042	36.5	1,477	2,565

주: 경인지방통계청, 2014

연령·계층별 여성 가구주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의 비율이 27.8%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50대가 20.3%, 30대가 18.4%로 나타났다. 60세 여성 가구주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30년에는 42.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경인지방통계청, 2014). 이와 같은 현상을 볼 때, 독거노인을 포함한 여성노인 가구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10] 서울특별시 연령·계층별 여성 가구주 비율

(단위: 천가구, %)

연령 연도	여성 가구주	구성비						
		소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0	606	100.0	1.0	21.2	16.5	21.5	17.9	21.9
2010	974	100.0	0.7	18.1	17.7	19.2	18.9	25.5
2014	1,090	100.0	0.8	15.8	16.9	18.4	20.3	27.8
2020	1,269	100.0	0.7	14.6	14.4	17.2	20.0	33.2
2030	1,477	100.0	0.6	10.2	11.4	14.6	20.3	42.9
(전국) 2014	5,147	100.0	0.8	10.8	13.8	19.0	20.2	35.3

주: 경인지방통계청, 2014

3_노인의 문제는 빈곤뿐인가?

1) 노인 연구 및 정책의 변화

노인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과 개념은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변화한다(김미혜, 2008). 농경시대에 노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노인은 대가족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나이가 든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노인 인구가 극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노인 인구의 증가를 단순히 노인이 많아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 이외의 다른 사회적, 정책적인 변화의 모습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요보호(要保護) 노인에 대한 임시구호사업이었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김미혜, 2008). 이는 전근대적 농경사회였던 당시 사회적 특성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와 달랐기 때문이다. 이때의 노인복지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처지의 노인들에 대한 임시적인 구호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복지 제공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변용전·황운원, 2012). 노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상황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기에,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개인뿐 아니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개인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도 있다. 실제로 최근의 노인 연구와 정책의 동향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추세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노인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치매나 우울증 및 신체적 건강 등 노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이외에도 노인재가서비스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김미혜, 2008). 또한 정책적으로 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이나 노인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젠더 연구로서 여성노인의 사회적 특성과 이에 기반을 둔 복지 욕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홍주연, 2000; 조희금·배나래, 2004; 박미정, 2010; 석재은, 2013; 이현주·안기덕, 2013; 장미혜, 2012, 장미혜, 2013; 전경숙 외, 2013; 이혜경, 2012), 이런 연구 성과를 반영한 실제적인 여성노인 복지정책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서술한 대로 노년의 문제는 개인적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노년 및 노인 문제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기에 대해 개인이 내재하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변화라는 관점이 아닌 외재적인 조건, 즉 사회제도가 사회지위 내지 역할 변동과 같은 사회학적 관점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좀 더 복합적인 사회학적 관점은 결과적으로 노인의 빈곤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노인 빈곤의 원인

노인 빈곤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노인 가구의 특성,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현재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 과거 노인의 직업력 등으로 구분된다(강미희, 2013).

최현수·류연규(2003)는 노인 가구의 특성에 따라 노인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강미희(2013)는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가구원과 같이 사는 경우가 빈곤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노인 단독가구, 노인 부부 가구 순으로 빈곤율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보유한 자산이 많을수록 빈곤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밝히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빈곤층이 될 확률이 낮다는 해외 연구 사례의 결과(McLaughlin and Jeanssen, 2000; Rupp et, 2003; 강미희, 2013 재인용)를 참조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과 지방 간의 노인빈곤 격차를 제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도 노인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등을 들 수 있다.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McLaughlin and Jensen, 1994; 최현수·류연규, 2003; 홍백의, 2005, 최점숙, 2009). 최옥금(2007)은 연령 변수에 따른 빈곤의 모습을 모여주고 있는데 이는 연령의 증가가 곧 노동시장 참여기회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며 가구유형에서 사별로 인한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가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강미희, 2013).

특히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과거 소득, 즉 과거 노동 경험과도 연관이 있다. 과거 소득을 반영하는 소득으로 연금이나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7% 정도이지만, 연금 등 과거 소득이 반영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조사된다(이소정 외, 2008). 교육수준이 높으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혜 비율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낮으면 무직자로 지내거나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 등의 불안정한 직장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홍백의(2005)의 연구에서도 증명된다. 홍백의(2005)는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과거 노동력 변수를 활용하여 과거의 직업 및 지위가 현재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렇듯 노인의 빈곤은 가구 구성원 특성,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직업력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3) 여성노인의 빈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인 빈곤의 원인은 다양하다. 여성노인의 빈곤에서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성이다. 한국 사회에서 빈곤은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 빈곤층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들이 빈곤의 전형으로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혜경(2011)은 성 분업과 가부장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도 인구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곧 공공부조 수급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 반면, 사회보험의 절대 다수는 남성인 ‘현실’과도 연결된다(이혜경, 2002). 다시 말하자면, 빈곤이 여성화되는 경향은 “그 사회의 경제사회적 규범 및 상황, 그리고 연금정책 등 국가정책적 선택의 결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신재은, 2013).

박미정(2010)과 이현주·안기덕(2013)은 여성노인의 빈곤이 노년기라는 특정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유지되고 강화되는, 이른바 생애지속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장미혜(2013)는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이 단순히 소득의 중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소득과 자산소득의 젠더 간 불평

등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결과로 본다.

게다가 한국사회의 변화는 현재 여성노인의 빈곤을 악화시킨 계기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관계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고, 가족이 노인부양을 책임지던 모습이 사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전통적 가족관계가 사라지자 독자적으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경제적, 사회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 특히 여성노인들은 빈곤에 깊이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장미혜, 2012; 장미혜, 2013).

마지막으로 류도암·문미경(2014)은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삶의 만족도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성노인은 별거, 사별, 독신 등과 비교하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여성노인이 배우자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사회적 구조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노인의 빈곤에는 성별을 기반으로 한 학력뿐만 아니라 가구원 구성의 특성 등 다양한 맥락이 존재한다.

[표 1-11] 가구주 성별·연령별 빈곤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20세 미만	10.0	9.7
20~64세	5.3	11.8
65세 이상	29.3	56.1
전체	7.0	21.0

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변형

통계수치로 보면, 노인 여성의 빈곤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빈곤율을 비교했을 때,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다. 물론 20세에서 64세 이하의 집단과 65세 이상의 여성 가구주 집단은 전 연령대의 평균에 비해서도 낮지만, 남성 가구주 집단보다 2배 이상 높다. 무엇보다 여성노인이 가구주인 65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56.1%가 빈곤 상태이다.

02

폐지수집은 노동인가?

- 1_재활용품 산업과 정책
- 2_재활용품 산업의 구조
- 3_폐지가격의 결정과정
- 4_노인의 폐지수집이라는 직업

02 | 폐지수집은 노동인가?

1_재활용품 산업과 정책

1) 폐지수집 노인과 자원순환 정책의 관계

턱없이 부족한 생계 비용으로 인한 노인빈곤층이 급증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손수 레를 끌고 파지 수거에 나선 노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파지를 주워 생활하는데 2~3년 전 1kg당 120~130원 하던 파지 가격이 70원으로 하락해 하루 50kg을 줍는다고 해도 3,500원 정도를 벌 뿐이다. (중략) 폐지수집 노인 등 고물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파지 관련 종사자 200만 명의 생업에는 뒷전이다. 정부는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미명 아래 아무런 대안도 없이 민원 처리에만 급급해하며 이들을 퇴출하려 하고 있다. 영세고물상이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말하지만 도시빈민 노인의 생계와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이전이나 행정처분보다는 고물상 미관을 개선하는 등 고물상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 '미관 해친다' 고물상 쫓아내면 파지 줍는 노인들은?'

추석 명절, “종일 발품 팔아 5천 원...‘폐지 노인’ 쓸쓸한 추석”²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폐지수집 여성노인뿐 아니라 흔히 소외계층이라고 불리는 빈민층이 처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 길은 요원하다. 폐지수집 노인에 대하여 “쓸쓸한” 노인과 같은 말로 호명하며 동정과 연민을 구하는 일은 생각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앞선 2장에서 주장한 대로, 이들이 처한 구조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현실의 삶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이 종사하는 산업과 노동자로서의 ‘노인’의 모습을 살펴해보려고 한다. 폐지수집 노인, 특히 폐지수집 여성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어

¹ 정재안, 『민중의 소리』, 2015년 3월 22일자 기사.

² “KBS 뉴스”, 2015년 9월 26일자 보도.

떤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앞쪽의 인용문에서 읽어보았듯이, 폐지 수집 노인들은 ‘고물’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정책적 언어로는 ‘자원순환 정책’에 해당하는데, 폐지수집 노인들은 ‘자원순환 정책’ 혹은 ‘재활용품 산업’으로도 불리는 산업의 꼬트머리 어딘가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우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에서 진행된 자원순환 정책의 변화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재활용품 수거는 1990년 들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몇 년 동안은 재활용품 수거, 특히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 역시 재활용품의 수거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생긴 주택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골목들은 이전보다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단독주택이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골목이 그대로라는 점이다. 이 탓에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골목에, 다량의 쓰레기가 배출되었다. 그럼에도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재활용품’ 수거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5년에 들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생겨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흔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는 것이 이 제도의 원칙이다.³ 서울시는 이 시기를 폐기물관리기반 구축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전까지 냄마주이와 고물상이 재활용 업체와 직접 거래를 해왔지만, 이 시기부터 공공영역이 재활용품 산업에 개입하였고, 관리의 직접적인 주체가 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재활용품 산업 자체가 크게 확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 이전보다 늘어났지만, 처리할 시설이 부족하였다. 재활용품 산업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은 그 질이 낮아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하였다.⁴

3 서울시의 폐기물정책은 시기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청소시대(해방 후~1980년대), (2) 폐기물관리기반 구축시대(1980년대 후반~1990년대), (3) 자원순환 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4) 쓰레기제로 시대(2000년대 후반~현재) (유기영, 2015: 10쪽 [그림 2-1] 참조) 자세한 내용은 유기영(2015)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서울시는 2000년대 들어 자원순환시대를 표명하였고, 재활용품 산업을 세분화하였다.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그 물품의 본래 생산자가 재활용품의 처리를 맡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재활용품 산업에서 생산자가 재활용품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업체 등에 위탁 재활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3년 5월 22일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나서 직접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하고 회수·재활용에 비례한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⁵

재활용품의 수집과 처리 과정은 민간영역에서만 이루어지다가, 공공영역(서울시)이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폐지를 비롯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과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그/녀들은 제도와 유리(遊離)되어 있고, 재활용품을 거래하는 영세 업체와 관계가 있다는 정도의 파악만 가능한 정도이다.

2) 폐지수집 노인의 작업 공간으로서의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런 변화를 거쳐, 서울시는 자원순환 정책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 산업에 끊임없이 매개하고 있다.

재활용에 대한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⁶을 가리킨다. 이를 기초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2008년 개정법은 ‘자원순환’을 맨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것처럼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⁷ 재사용이란 빈

4 유기영, 2015: 8~10쪽

5 이 시기 서울시는 ‘서울SR센터’를 만들었고,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선풍기 등의 소형가전제품을 자원화하기 시작하였다.

6 이 외에도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병을 회수하여 청결하게 만든 후, 다시 내용물을 넣고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재생이용은 사용하였거나 이미 폐기된 제품을 원료로 되돌려서 동일한 소재의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재자원화도 있다.⁸

자원순환 정책의 제도적인 기반이 잘 닦였고, 정책을 통해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울시 전체의 사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아파트와 공동주택, 사업장이 밀집한 공간과 단독주택 지역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공간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아파트와 공동주택, 사업장이 밀집한 공간은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한다. 이 지역은 대개 강남이나 목동과 같이 도시계획을 통하여 개발 혹은 재개발된 곳이다. 바둑판처럼 구획정리가 되어 있고, 제도와 산업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⁹ 다시 말해 반듯한 길이 곳곳을 연결하고, 새롭게 조성된 건물과 대지는 구분되어 공원, 주민공간, 쓰레기장 등으로 각각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 역시, 일반쓰레기통, 음식물쓰레기통,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이 배치되어 있고, 임의의 관리인들이 존재하며, 위탁계약을 통하여 전문업체가 수거를 한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공간은 다르다.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데다 정돈되거나 계획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에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문전수거’ 방식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게끔 되어있다.¹⁰ 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골목은 지정한 장소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사업장과는 달리 별도의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품 수거를 위탁하긴 하지만, 수거가 매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몇 개 구

⁷ 전재경, 2008: 58~59쪽 참조

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같은 조 7항 참조

⁹ Lefebvre, 2005: 132쪽.

¹⁰ 서울특별시, 2013: 223~224쪽.

는 한 주에 3일 혹은 4일 수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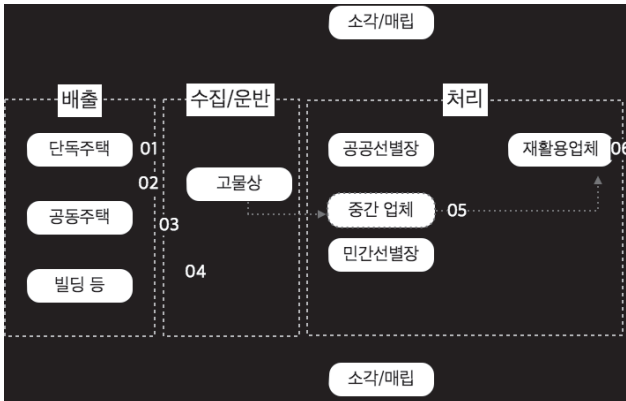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많은 공간의 골목에서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분명 수거 업체가 있긴 하지만, 별다른 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자체에서 고용한 환경미화원이나 동 차원에서 ‘마을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고용한 노인들이 청소 업무를 맡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공간은, 폐지수집 노인들의 작업 공간이자 일터다. 도시가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좁은 골목들은 공공영역이 침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녀들은 정책과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한 문 앞과 골목까지 찾아와 방치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를 대신한다기보다, 폐지수집은 정책과 제도의 빈틈이 만들어 낸 변종의 직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재활용품 산업의 구조

1) 서울시의 재활용품 산업의 일반적인 구조

앞 장에서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재활용품 산업의 구조와 폐지수집 노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그림 2-1] 서울특별시 '자원순환'의 경로

재활용품 산업은 '배출 → 수집/운반 → 처리'의 3단계에 각 주체가 매개되어 있다([그림 2-1]).^{11 12} 배출 과정에는 배출자가, 수집/운반과정에는 재활용사업자¹³, 재활용의무생

¹¹ 기후환경본부, 2013: 8쪽 참조

¹² 안지혜 외(2014)는 폐지수집 여성노인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을 고안하는 연구에서,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의 노동 패턴을 아래의 표처럼 정리한 바 있다.

단계		PRE		DURING			POST		
과정	작업 준비	손수레 운전	구역 반복탐색	폐자원 분리	폐자원 분리 /부피줄이기	식사를 위한 귀가	루트 반복	고물상 찾아가기	폐자원 판매/귀가

¹³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주체는 재활용사업자이다. 이들은 단수가 아니라, 다층적이며 복수로 존재한다. 흔히 서울 근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물상'이나 '자원수거업체' 등이 포함되며, '선별장'을 가리키기도 한다. 모든 재활용품이 고물상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고물상은 폐지를 최초로 수거하고 운반하며, 종류에 따라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혹은 자원수거업체 등을 통하여 선별장으로 향한다. 선별장 역시 공공선별장과 민간선별장으로 나뉘며, 재자원화할 수 있게끔 종류에 따라 세세히 선별한다.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업체로 향한다.

산자¹⁴, 자치구, 나카마¹⁵, 폐지수집 노인이, 처리 과정에는 재활용사업장, 자치구, 서울시 등이 연결되어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정부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한다.¹⁶

수집/운반 과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지역과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을 분리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배출 단계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을 택하고 있다. 분리수거함은 대개 5~6종 정도로 그 종류를 구분한다.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종이팩류, 유리병류, 금속캔류, 합성수지류 등 4종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헌 의류와 이불류 등 2종이 재활용 품목이다.¹⁷ 수집과 운반 과정에서 공동주택지역은 대개 자체적으로 계약한 위탁업체가 정해진 시간에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공공 선별장이나 민간 선별장으로 운반한다.¹⁸

단독주택 지역은 배출에서 수집과 운반 과정 모두가 다르다. 서울시의 단독주택 지역은 모두 문 앞에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환경미화원이나 대행업체 직원이 수거하는 ‘문전수거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구마다 분리배출 품목 수가 각기 다르다.¹⁹ 수거횟수 역시 한 주에 2회, 3회, 매일 수거로 각각 다르다.

¹⁴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직접 재활용이나 위탁 재활용한 정도에 비례하여 공제받는 것이 보통이다.

¹⁵ 나카마는 ‘한때, 동료, 무리’ 등을 뜻하는 일본어의 なかま를 차용한 말이다. 폐지수집 산업에서는 별다른 소속 없이 이동하며, 폐지를 매입하는 중개상인을 가리킨다. 보통 1톤 트럭을 끌고 다니며, 재활용품을 사다가 선별업체 등에 판매한다.

¹⁶ 유기영, 2015: 49~62쪽 참조.

¹⁷ 서울특별시, 2013: 223~224쪽.

¹⁸ 고물상을 통한 폐지 수집과 지자체 위탁업체와 지자체에서 고용한 환경미화원에 의한 폐지 수집량을 비교한다면, 현재 제도 바깥에 위치한 폐지 수집의 양을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¹⁹ 공동주택처럼 5개 품목 이상을 분리 배출하는 구로는 종로구, 중구, 은평구, 관악구, 서초구가 있다. 반면 4개의 품목으로 나누는 구는 성동구, 강북구, 노원구가 있고, 3개의 품목으로 나누는 구는 성북구, 금천구가 있다.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는 경우는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 있다(서울특별시, 2013: 224 <표 2-29> 참조).

폐기물은 친환경적인 ‘처리’²⁰를 거쳐야 한다. 처리 과정은 선별장에서 재활용업체를 거치는데, 이 과정은 공동주택지역과 단독주택지역의 차이보다, 정책이나 산업적인 데서 오는 차이뿐이다. 선별과정과 재활용업체에서의 생산과정으로 나뉜다. 공공 선별장이나 민간선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하는데,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잔재물로 분류하여 소각하거나 매립한다. 원료화된 것이나 세척 과정을 거친 재활용품은 재활용업체를 통하여 재활용품으로 새롭게 유통된다.

폐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²¹이다. 제도적으로는 폐지는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폐지 재활용은 소규모 가내수공업 수준에서 산업 수준으로 발전했는데, 폐지를 재활용하는 공정이 무한정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폐지를 물에 녹여 섬유입자화하고, 펄프제조기에 넣어 혼합한다. 절단과 마찰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죽처럼 만든다. 이때 발생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한 후 비누나 세척제 등을 사용한 ‘부유분리법’을 통하여 잉크 입자를 제거한다. 이때 만들어지는 펄프가 재생용지이다.²²

2) ‘비제도권의 영역’: 노인과 고물상

배출에서 수집과 운반 과정까지 공동주택지역과 단독주택지역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의 정책은 두 지역의 공간 구성에서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제도권의 영역’과 ‘비제도권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²³

우선, 제도적인 영역에서의 수집/운반은 ■과 ■로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지역고물상을

²⁰ 「폐기물관리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의미한다.

²¹ 폐기물이란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포함)로 나눌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1항 참조).

²² De Silguy, 2009: 247쪽.

²³ 이 분류는 은수미 의원실(2012: 13쪽)의 관점을 빌려왔다.

거치지 않고, 환경미화원이나 지자체의 위탁업체가 재활용 자원을 수집하여 공공이나 민간 선별장으로 운반하는 것이다.²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며, 지자체의 위탁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계약한 수거업체가 수거/운반한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은 문전 수거, 공동주택은 거점수거방식(컨테이너수거방식)을 채택한다고 분류한다.²⁵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비제도권의 영역’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²⁶ 앞서 살펴본 대로 비공식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야기된다. 비제도적인 영역에서의 수집/운반은 ■와 ■에 해당한다. 허가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일종의 사각지대로 암묵적인 용인(容認)에 유지되는 상황이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폐지수집 행위는 여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비제도권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고물상의 법적 지위 때문이다. 사실상 도심 내에 있는 고물상은 대개 불법인 상태에 놓여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통하여 “특별 시·광역시·도의 경우 1,000㎡(약 302평) 이상, 시·군 2,000㎡ 이상 규모의 고물상”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고물상들은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하였다.²⁸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건축법”에 의하여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개칭)’로 분류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²⁴ 고물상을 통한 폐지 수집과 지자체 위탁업체와 지자체에서 고용한 환경미화원에 의한 폐지 수집량을 비교한다면, 현재 제도 바깥에 있는 폐지 수집의 양을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²⁵ 환경부, 2008: 76쪽.

²⁶ 지자체가 고용한 환경미화원이나 민간위탁업체에 의한 ‘제도권의 영역’과 주로 도보꾼과 나카마에 의해 고물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제도권의 영역’이 공존하고 있다.

²⁷ 물론 ■와 ■의 과정이 노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카마’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들은 재활용 자원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팔거나 노인들로부터 재활용 자원을 매입하여 고물상에 되팔기도 한다. 고물상은 제도권의 민간선별장에 재활용 자원을 팔기도 하지만, ■처럼 선별장의 역할을 하는 (역시 비제도적인) 중간업체에 파는 경우가 있다.

²⁸ 환경부 자원순환국 재활용관리과,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http://m.korea.kr/newsWeb/m/factView.do?newsDatald=148765631>, 2015년 8월 24일 검색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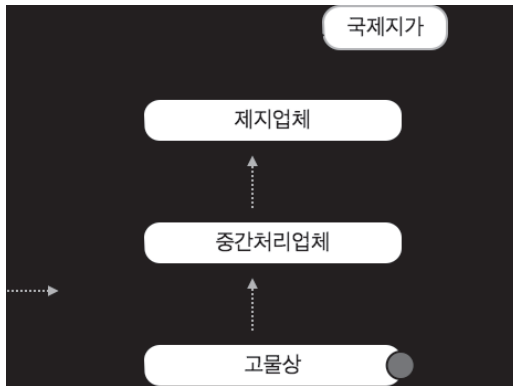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처해있다.²⁹

폐지수집 노인들은 고물상과 거래를 하고 있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수집행위는 수집/운반 과정에서 제도의 바깥에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폐지를 비롯한 재활용품의 가격 산정은 ‘시장 논리’라는 수사(修辭) 외에는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폐지수집 노인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이 비제도적이기 때문인지 파악된 바가 없다.

²⁹ 은수미 의원실, 2012: 14쪽 참조; 이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개정되었음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3_폐지가격의 결정과정

폐지수집 노인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폐지를 팔고 받는 가격이다. 중앙일간지에서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기록은 「한겨레」 1996년 12월 9일의 기사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폐지 가격의 폭락과 함께 노인들이 폐지수집을 중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³⁰ 폐지 가격의 변동은 폐지수집 노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2절에서 본 것처럼 비제도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폐지수집 노인들이 폐지를 파는 가격은 제도에 의해 정해지기보다, 최종 구매자인 제지업체가 정한 가격에서 중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들을 뺀 상태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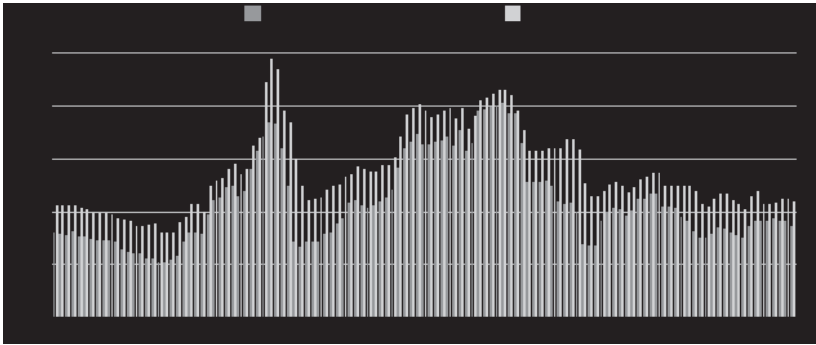
[그림 2-2] 폐지 가격의 결정 구조

폐지가격의 결정구조는 [그림 2-2]와 같다. 국제 지가를 기준으로 제지업체가 수율을 기초로 매입가격을 결정한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처리업체가 자신의 이윤을 계산하여, 고물상 등에 매입가격을 통보한다. 고물상도 자신의 이윤을 계산하여 노인들에게 폐지가격을 알린다. 폐지가격에는 국제 지가와 수율을 토대로 기준이 정해지고, 중개업자들이 이윤을 뺀다. 그 누구도 노인들의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가격의

³⁰ 「한겨레」, 1996년 12월 9일자 기사(<http://www.mediagaon.or.kr/jsp/sch/mnews/01101001.19961209000002302>) : 이 기사에서는 1년 전인 1995년에 신문지 값이 1kg당 100원, 골판지 값이 1kg당 70원이었으나, 1996년에 들어 신문지 값이 1kg당 40원, 골판지 값이 1kg당 30원대로 떨어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폭락했다는 점에서 당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신문지 값과 골판지 값이 1995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결정과정은 상위 산업의 결정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다. 단계별로 이윤을 계산하여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어떤 단계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2-3]은 2005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매달 수도권에 있는 업체를 통해 수집한 폐지(골판지와 신문지)의 가격 동향이다.³¹ 재활용품 산업에서 폐지는 크게 골판지와 신문지로 나뉘는데, 보통 신문지의 값이 골판지의 값보다 비싸다.³² 종이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백지”가 가장 비싸며, “먹벌”이라 불리는 ‘백상지’에 인쇄된 종이의 가격이 책지(일반적인 책)보다 비싸다.



[그림 2-3] 폐지가격의 동향(2005~2015년)

2009년 8월에서 2014년 1월까지의 최대 203원(2011년 9월), 최소 68원(2012년 11월)이라는 변동이 존재하긴 하지만, 평균 133원일 정도로 가격대가 현재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다. 반면,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평균 85원대로 떨어져 있다. 이 가격대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가격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한국환경

31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통계 DB, 한국환경공단.
(http://stat.keco.or.kr/keco_web/?sub_num=12&state=view&stc_cd=001&info=web)

32 2007년의 종이 수요 상황은 다음과 같다. “골판지를 비롯한 각종 포장용 산업용지가 60%, 책을 만드는 데 쓰이는 종이는 24%, 신문용지가 12%, 나머지 4%는 화장지가 차지한다. 종이포장재는 크게 리면상자 같은 골판지와 고급제품 포장지로 쓰이는 백판지로 나뉜다. 골판지는 폐지와 기계펄프만을 섞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백판지는 환색을 내기 위해 화학펄프를 사용한다. 화학펄프는 기계펄프와 달리 약품처리 과정이 추가된다. 노란색을 띠는 목질소를 제거하고 섬유소만 추출해내는 것이다(사림, 2007).” 그리고 골판지 종류는 종이상자를 만드는 데 쓰이고, 신문지는 재생용지로 재활용된다.

공단에서 조사한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의 수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그것이다. 여러 차례의 관찰과 인터뷰를 참조할 때, 조사된 이 가격을 폐지수집 노인들이 고물상과 실거래를 할 때 받는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2015년 7월과 8월 사이에 거래한 아현지역 노인들은 1kg당 85원이 아니라 1kg당 70~80원 사이의 가격에 골판지(종이박스 등)를 팔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³³

비슷한 양의 폐지를 판다고 가정하였을 때, 고물상으로부터 받는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 가지 비교를 해보자.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5년의 생활물가지수는 84.637이며, 2007년의 생활물가지수는 90.012 정도다. 2014년의 생활물가지수는 107.81 정도로 오른 상황이다. 생활물가지수가 이전보다 크게 상승한 상황인데도, 폐지 가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³⁴

³³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노인의 증언이다.

³⁴ "생활물가지수" 항목 참조(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C#SubCont, 2015년 8월 15일 검색결과)

4_노인의 폐지수집이라는 직업

1) 늘어나는 쓰레기, 줄어드는 취업의 문

“한 종류의 오염을 억제하면, 보통은 다른 오염이 증가한다”는 한 사변가의 도시에 관한 질문을 염두에 두자.³⁵ 도시의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폐지 재활용품 산업은 새로운 산업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무렵까지는 ‘넙마주이’와 그 후예들의 일이었다.³⁶ 이들은 다른 이들이 내다 버린 것 중 넙마³⁷나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주워서 되팔고, 여기에서 생긴 돈으로 생활하였다. 모두가 이들이 사라진 줄 알았다. 아니었다, 짠 값의 고철이나 폐지가 대량 수입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기존의 집단들이 와해되었을 뿐이다.³⁸ 또한 도시 곳곳에 쓰레기통이 놓이자 기존의 넙마주이들의 역할이 필요 없어졌다. 사실 제도가 만들어 낸 이상향은 “쓰레기통을 여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과 수거 업체의 종사자”일 뿐일지 모른다.³⁹ 그러나 제도가 가진 이상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요원하다. 알다시피 ‘문제아들’로 구성된 넙마주이는 사라졌다. 넙마주이의 주축이던 길거리 청소년들은 도시 내부로 흡입되었고, 더 이상 거리를 부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넙마주이라는 ‘직업’은 여전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노인들이 새로운 넙마주이로 등장하였다.⁴⁰ 그/녀들은 공동의 쓰레기통과 분리배출이 마땅히 없는 공간을 걷고

³⁵ Illich, 2009: 210쪽.

³⁶ Sennet, 2004: 174쪽.

³⁷ ‘넙마’란 사전적으로 낡고 헤어져서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이불 따위를 가리킨다.

³⁸ 김미경, “해방 50년, 삶의 발자취를 찾아서① 넙마주이”, 『한겨레』, 1995년 1월 8일 10면.

³⁹ 파리로 쓰레기를 바닐에 넣어 밀봉하고, 뚜껑이 달린 커다란 통이 등장한 후에 넙마주이가 줄어들었다고 하니 말이다(Catherine De Silguy, 2009: 123~130쪽 참조).

⁴⁰ 나이로 본다면, 청소년기에 넙마 수집의 경험을 가진 자들이 노년기에 이르러 폐지 수집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빈곤의 연속선 상으로만 파악하게 될까 조심스럽기는 하다. 게다가 노인들에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다. 또 다른 문제점도 한 가지 존재한다. 폐지수집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노인뿐

있다. 노인들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배출과 수거 사이에 폐지나 돈이 될 만한 물품을 주워간다. 특정한 공간에 그/녀들이 있다. 다시 말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바로 공동의 쓰레기통이 없는 공간이다.

노인이 돈을 벌 기회가 계속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에 시작되어 3년 주기로 조사된다. 이 조사에 의하면, 모든 노인 가운데 취업 상태⁴¹인 사람이 29%(1998년), 34.5%(2008년), 28.9%(2014년) 정도라고 한다. 노인의 취업은 힘들다는 것이 상식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 수치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취업 노인들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농·어·축산업 종사자의 수가 36.4%(2014년)로 2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36.6%(2014년)로 가장 많아졌다는 점이다.⁴²

종사 직종 조사에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남성 35.7%, 여성 41.4%)이 가장 높았으나 남성의 19.9%와 여성의 18.6%가 경비, 수위, 청소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주로 남성은 경비와 수위 업종에서, 여성은 청소 관련 업종에서 일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성별로 남성은 운송 및 건설 관련 업종(17.1%)과 기타(11.2%)의 비중이 높지만, 여성은 가사, 조리, 음식 관련 일(14.9%) 남성(2.6%)보다 높다.⁴³ 공공환경과 관련한 업종은 남성은 7.3%, 여성은 8%가 종사하고 있는데, 폐지수집은 남녀를 합쳐서 4.4%가 하고 있다.⁴⁴ 이런 통계치는 산업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노인에게 능력에 기반을 둔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경고신호로 보아야 한다.

아니라, 동포나 외국국적의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다고도 한다.

⁴¹ 이때 취업상태라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을 말한다.

⁴² 보건사회연구원, 2015: 373쪽 <표 10-2> 참조.

⁴³ 보건사회연구원, 2015: 375쪽 <표 10-3>의 주 4) 참조.

⁴⁴ 보건사회연구원, 2015: 375쪽 <표 10-3> 참조.

2) 폐지수집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폐지를 수집하는 일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폐지수집을 하는 여성노인들은 대개 자신의 일을 “이 일” 또는 “이 직업”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에서는 사각지대로 치부하지만, 그/녀들이 하는 일은 엄연히 정책과 산업의 일부를 담당한다. 분명, 이 일은 그/녀들에게 하나의 직업이며 노동이다. 더군다나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는 점에서 불로소득(不勞所得)이거나 간헐적인 취미(趣味) 혹은 ‘운동거리’가 아닌 소득이 있는 노동으로 보아야 한다.

“폐휴지를 수거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전혀 하지 않아요. 일 년 열두 달, 그런데 폐휴지를 하는 사람은 일 년 열두 달 해요. 10년도 하는 사람도 있고, 20년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이것으로 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것만 해와. 하지 않는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전혀 안 해.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⁴⁵

“이 직업은 한 번 잡으면 못 놔.”

- A의 말 (6장 참조)

폐지수집 행위는 낮은 일이지만, 분명 그/녀들에게 직업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폐지수집은 자원순환정책과 재활용품 산업에 매개되어 있다.⁴⁶ 재활용품 산업의 참여를 자처하며,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꾸어 일해가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제도와 산업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폐지수집은 위험한 직업이다.

폐지수집의 경로는 다른 재활용 자원과 마찬가지로 “배출 → 수집/운반 → 처리(선별 → 재활용)”를 거친다. 특히, 노인들이 수집한 폐지는 대개 불법 상태와 마찬가지로 고물상을 통해 재활용업체까지 판매되며, 이는 종이상자나 재생용지와 같은 (재생)제지산업까지 연결된다. 노인들의 참여는 비제도적인 영역 중 일부이다. 이 점 때문에 불투명한 가격

⁴⁵ 이 내용은 서울역사박물관(2010: 100쪽)에 실린 ‘우리자원’ 사장의 인터뷰를 발췌하여 재인용한 것이다.

⁴⁶ 재활용에 관한 연구로는 유기영(2015)의 연구가 있으며, 매년 발간되는 서울특별시의 「환경백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결정 구조에 의한 판매대금을 취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폐지수집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수를 추산하기 어려우며, 둘째는 마땅한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

노인층의 빈곤 정도가 심해지고, 노인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쾌적함과 편리함이 만들어 낸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도 그/녀들이 이 직업으로 진입하게 된 계기일 것이다. 그리하여 노인들은 어딘가를 걷고, 돈이 될 법한 폐지와 재활용품들을 줍고 있다.

03

아현지역에 대하여

1_아현지역의 공간적 구성

2_아현지역의 인적 구성

03 | 아현지역에 대하여

1_아현지역의 공간적 구성

이 연구가 진행된 공간은 아현지역⁴⁷이다. 아현지역은 한 개 구(區)의 한 개 동(洞)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마포구의 아현동, 서대문구의 북아현동과 충현동을 통칭하여 아현지역으로 부를 것이다. 이는 폐지를 수집하는 여성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연구 대상 지역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1] 아현지역의 공간

47 아현지역의 행정구역 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64년 6월 1일, 법률 1640호(1964년 6월 1일 공포)에 의해 마포구 아현동 일부 지역이 서대문구로 편입되었다. 이후, 2001년 12월 7일자로 북아현동 일부가 북아현 2동으로 편입되었지만, 7년 후, 2008년 5월 6일 서대문구 조례 제765호에 따라 북아현1동과 북아현2동은 북아현동으로, 북아현3동은 충정로동과 통합되어 충현동으로 통합되었다.

이 공간은 총 13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 ~ ■ 지역: 폐지수집 여성노인 주거 지역

■ ~ ■ 지역: 신축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고급 단독주택 밀집 지역
(수거지역 1)

■ ~ ■ 지역: 재개발 지역

■ ~ ■ 지역: ■ 아현동 가구 거리, ■ 북아현동-충현동 상업지구 일대,
■ 아현시장 일대, ■ 이대입구역 상업지구 일대
(수거지역 2)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생활을 기준으로 할 때, 주거지역(■, ■, ■, ■)과 수거지역(■, ■, ■, ■, ■, ■, ■), 기타지역(■, ■, ■)으로 나눌 수 있다. 아현지역은 각기 다른 집단들이 한곳에 모여 있으며, 주택양식에 따라 생활양식이나 사회 경제적인 위치가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 공간이다.⁴⁸ ■, ■, ■, ■ 지역은 ■, ■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세대/다가구주택⁴⁹과 단독주택이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두 권역은 엄연히 다르다. ■, ■ 지역은 신축 다세대/다가구 건물이거나, 그 규모가 큰 단독주택이 많은 편이다. 반면, ■, ■, ■, ■ 지역은 오래된 단독주택이거나 ■, ■ 지역보다 작은 규모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많은 편이다.

■, ■, ■, ■ 지역⁵⁰은 아현지역 내의 기타 공간들과 달리 주로 단독-다세대/다가구주

48 서울역사박물관, 2010: 52~59쪽.

49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차이는 다가구 주택이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간주되어 세대별로 소유나 분양이 안 되는 임대 주택이라는 점이다. 다세대주택은 “한 건축물 안에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구분 소유 및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다(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욱, 2009/2008: 263쪽 참조).

50 ■, ■, ■, ■ 지역을 “폐지수집 노인 주거 지역”으로 추정한 것은 여성노인들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이며, 보관 중인 폐지를 많이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 지역에 있는 북아현-○길은 100여 m의 거리에 보관 중인 폐지 더미를 4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 지역에서는 6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폐지수집을 마치고, 새벽녘에 귀가하는 모습을 몇 차례

택이 많으며, 판자촌과 쪽방촌으로 볼 수 있는 주택들도 상당수 있다. 일부 판자촌과 쪽방촌은 “섬처럼 구획이 지어져 다른 주거공간과 융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분명 존재한다.⁵¹ 이 지역의 다세대/다가구주택들은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개조하거나 신축하여 만들어졌다. 1970년대 이후, 아현지역뿐만 아니라 강북의 여러 지역은 기존의 방 면적을 줄여서 방의 수를 늘리고, 각 방에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을 놓거나 공동 화장실을 놓으면서 세를 놓았다. 지하실도 마찬가지로 셋방으로 만들었다.⁵² ■, ■, ■ 지역은 현재 재개발되었지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 ■, ■, ■ 와 같이 거대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아현지역에서 마포구 아현동은 1959년의 한 신문에서 “빈촌으로서 알려져 있고 또 아현동 산7번지 하면 강때 불량배들의 소굴”⁵³로 묘사된다. 한편, 현재의 북아현동 역시 자살과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불량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오래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판자촌에 가까운 집들이 몰려 있는 골목에서 만난 노인들 가운데 30~4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많았다.⁵⁴ 40여 년째, 월세로 사는 한 여성노인은 “본디 이북사람인데 싸니까 여(기)로 왔지”⁵⁵라고 말한다. 이 여성노인의 짧은 한 마디에 ‘불량주거지’ 재개발 이전의 사당동의 모습을 담은 연구(조은·조옥라, 1992)의 한 부분이 떠오른다.

반복적으로 목격하였고, ■ 지역에서 단층짜리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나온 60대 여성 한 명이 폐지 수집을 하는 것을 몇 차례 반복적으로 목격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주택의 현관 안에 폐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기록을 남기는 못하였다. ■ 지역에서는 연령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여성들이 폐지를 수거하여 다층 주택 계단 아래와 골목에 폐지를 보관하고, 구가하는 것을 관찰한 바 있다.

51 위의 책: 50쪽.

52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옥, 위의 책: 262~267쪽 참조.

53 1959년 1월 31일자 『동아일보』 신문기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901310020910302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59-01-31&officeId=00020&pageNo=3&printNo=11257&publishType=00010>)

54 인터뷰를 몇 차례나 요청하였지만, 인터뷰에 응해 준 노인이 없었다. 그런 이유로 길게 촬영과 녹음을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55 이북사람임에도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여성노인이었다.

“자가소유자들은 불량주거지에 거주함으로써 주거비를 줄이고 또 가옥값이 싸기 때문에 가옥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은 가구들이며 전세 가구들은 불량 주거지의 주거를 생활비 절약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나 짠 가옥을 구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가구들이다. 마지막으로 월세 가구는 그들의 생계를 주거비가 짠 사당동에 의탁하여 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짠 주거지가 없는 한 주거 자체의 해결이 힘들 뿐 아니라 생계의 위협을 받을 가구들이다. 사당동은 고용이 불안정하여 생계가 어려울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여성들의 경우 남편과 헤어지거나 사망했을 때, 가족의 누군가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급전이 필요할 때, 그리고 주거비를 최소화해야 하는 가구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⁵⁶

현재의 아현지역은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하여 재구조화되고 있고 이 구조 속에서 사당지역과 같은 불량주거지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것”⁵⁷과 같은 상황이다. 이름 모를 노인뿐 아니라, 이 지역의 노인 중 상당수는 “상품성이 없었던 때”⁵⁸ 아현지역에 진입한 사람일 것이다.

반면, ㉠, ㉡, ㉢ 지역은 ‘불량주거지의 재개발사업’ 중 하나로 재개발이 되었고,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⁵⁹

관찰에 의하면, 수거지역은 ㉣, ㉤과 ㉥, ㉦, ㉧, ㉨으로 볼 수 있다. ㉣, ㉤ 지역은 주거지역이라기보다 수거지역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한다. ㉥, ㉦, ㉧, ㉨ 지역(㉥ 아현동 가구 거리, ㉦ 북아현동-충현동 상업지구 일대, ㉧ 아현시장 일대, ㉨ 이대입구역 상업지구 일대)은 이 일대의 상업 지역이다.

⁵⁶ 조은 조옥라, 1992: 106쪽 발췌.

⁵⁷ 조은 조옥라, 위의 글: 149쪽.

⁵⁸ 조은 조옥라, 위의 글: 149쪽.

⁵⁹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폐지수집 노인들이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앞선 2장에서 언급한 대로, 아파트 단지가 민간업자와 재활용 자원 수거/운반을 위탁 계약하였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고물상은 두 곳으로 파악된다. 애오개역 2번 출구에서 아현중학교 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우리자원(아현동 270-9)이 있다. 이 부근의 다른 고물상에 비해 대로에 있고, 오르막길이 아니라는 점을 본다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볼 수 있다. 두 할머니가 이동할 때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다. ⁶⁰에서 샷시 설치업 종사자의 이야기로는 근방 노인들이 종이를 주워다 우리자원에 파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한다. 서울역사박물관(2010)의 조사로는 신공덕동의 한진자원이 아현초등학교 담길 옆에서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매일 폐지를 매입한다고도 한다.⁶⁰

더불어 아현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위치를 살펴보겠다. 아현지역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곳은 아니다. 각 구를 경계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구분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마포구의 구립아현실버복지관(마포구 환일길 3)과 서대문구의 이화여자대학교부설 사회복지관(서대문구 북아현로19길 58-21)이 근방에 위치한다. 이 외에도 충정로에서 서대문으로 가는 길 방향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이 있다. 그리고 연꽃마을 아현노인복지센터(마포구 마포대로26길 19)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의 3절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⁶⁰ 서울역사박물관, 2010: 103쪽; 그러나 두 달간의 관찰 중 발견하지 못하였다.

2_아현지역의 인적 구성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인구가 각각 313,216명, 380,502명이다. 이 가운데 노인 인구는 각각 44,506명과 46,25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여성노인은 25,680명, 26,746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보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없다([표 3-1]).

[표 3-1]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전체 인구 및 노인 인구

(단위: 명)

자치구	전체 인구	65세 이상 인구 수		
		계	남	여
마포구	380,502	46,255	19,491	26,764
서대문구	313,216	44,506	18,826	25,680

아현지역(마포구 아현동 및 서대문구 북아현동과 충현동)에서 서대문구의 북아현동과 충현동은 서대문구의 다른 지역보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서울시 전체의 노령화지수가 97.3%인데, 충현동과 북아현동은 노령화지수⁶¹가 각각 165.4%와 158.9%로 무척 높은 편이다([표 3-2]). 아현동은 노령화지수가 94.7%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표 3-2] 아현지역의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내국인 인구

(단위: 명, %)

	전체 인구			65세 이상 내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아현동	25,700	12,481	13,219	2,907	1,206	1,701	15.1	94.7
충현동	19,650	9,597	10,053	2,916	1,221	1,695	20.2	165.4
북아현동	10,544	5,116	5,428	1,556	642	914	20.2	158.9

⁶¹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노인(65세 이상) 인구 수” 비율이다. 이 지수는 2014년 기준이며, 서울통계의 검색결과다.

그다음으로 연구대상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자. 아현동은 231가구 30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충현동은 234가구 403명, 북아현동은 119가구 153명이 생활하고 있다. 총수급자는 각 자치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 노인 인구의 비율은 노인이 빈곤층의 다수를 보이는 노인 빈곤의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여성노인의 빈곤과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서대문구와 마포구에 있는 총 수급자는 가구 수가 각각 3,980가구와 3,924가구로 나타났다으며, 인원수는 각각 5,779명과 6,412명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빈곤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연구 대상 지역인 아현동 및 충현동, 북아현동은 좀 더 복잡한 모습을 띤다.

[표 3-3] 아현지역의 총수급자 수와 종류별 수급자 수

(단위: 가구, 명)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아현동	231	306	206	263	18	33	7	10
충현동	234	434	194	242	35	74	5	7
북아현동	119	153	106	135	9	13	4	5

이는 단순히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노인이 많다는 해석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제외된다(서울연구원, 2014). 이는 빈곤한 노인, 특히 빈곤한 여성노인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계속해야 한다. 이는 곧 여성노인을 포함한 노인들이 폐지 수집과 같은 노동을 택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04

아현지역의 복지체계에 대하여

- 1_서울특별시의 노인정책사업
- 2_서대문구·마포구 노인복지사업
- 3_충현동·북아현동·아현동 노인복지시설

04 | 아현지역의 복지체계에 대하여

1_서울특별시의 노인정책사업

1) 서울특별시 노인정책사업

(1) 건강 분야

[표 4-1] 서울특별시 노인 건강 분야 사업

구분	근거	사업명
건강 분야	서울시 어르신종합계획	○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 강화 - 독거 어르신 기능평가 및 운동처방 ○ 어르신 몸과 마음 건강 지원 - 재가어르신 지원 서비스 강화 ○ 어르신 몸과 마음 건강 지원 - 재가어르신 지원 서비스 강화, 노인자살 예방 관리 강화
	복지건강실 업무현황	○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 의료급여 사례관리 ○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시립노인요양·양로시설 민간위탁 운영 ○ 시립병원 공공서비스 강화 및 특성화 추진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사업 강화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센터 ○ 치매관리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방문건강관리 ○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 재가암환자 관리 ○ 65세 이상 노인 원외 약국 약제비 지원 ○ 노인건강검진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 한방 건강증진 사업 ○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변형

서울특별시의 노인정책사업에서 중 건강분야 사업은 의료지원 등 건강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업대상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독거노인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것은 여성노인이 대다수지만, 여성에 대한 고려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사업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분류 체계를 꼼꼼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3: 27쪽).

(2) 안전 분야

【표 4-2】 서울특별시 노인 안전 분야 사업

구분	근거	사업명
안전분야	서울시 어르신종합계획	○ 지역밀착형 복지 인프라 구축 -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개편,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 어르신 살기 편한 주택공급 -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확산, - 독거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 손자, 손녀와 소통지원 - 독거 어르신-대학생 간 주거공유 지원
	복지건강실 업무현황	○ 어르신 복지시설 안전관리 ○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무장애업소 인증 ○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지원 ○ 쪽방 거주자 생활안전 지원

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변형

현재 서울시는 정책사업으로 독거노인 지원주택 공급 확산을 위해 노인의 집 운영 개선, 공공 임대주택 활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1인 가구의 주거욕구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28쪽).

(3) 돌봄 분야

노인돌봄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나, 대체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노인 1인 가구의 규모와 독거기간의 증가에 따른 공통적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독거노인의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기반 노인 1인 가구에 특화된 사업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28쪽).

[표 4-3] 서울특별시 노인 돌봄 분야 사업

구분	근거	사업명
돌봄 분야 (커뮤니티)	서울시 어르신종합계획	○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 강화 - 민간자원 연계돌봄 수혜자 확대, 독거 어르신 대상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건강실 업무현황	○ 세대통합 복지공동체 사업 ○ 요양보호사 등 노인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 데이케어센터 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저소득 시민 부가지원 ○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 긴급복지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 ○ 자치구 지역복지기금 시범운영 ○ 나눔이웃 활성화 ○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 ○ 희망마차 운영 ○ 디담돌 사업 ○ 희망식당 설치·운영 ○ 기초연금사업 운영 ○ 어르신돌봄서비스 사업 ○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서비스 지원 ○ 보호자 없는 병상 운영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 음식으로 소통하는 이웃 만들기

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변형

(4) 일자리 분야

서울시 어르신종합계획에서의 일자리 사업 중 전문직 은퇴자는 베이비부머(51세~58세)에 국한되어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여성독거 노인대상 일자리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지원 사업에서 여성노인에게 특화된 사업은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가벼운 소일거리를 원하나 이동이 불편한 여성노인의 상황을 고려해 여성독거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이 요구된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28쪽).

【표 4-4】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분야 사업

구분	근거	사업명
일자리 분야	서울시 어르신종합계획	○ 베이비부머 제2인생 설계지원 -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신노년층 대상 평생교육 강화, 베이비부머 엑스포 개최 ○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구축, 신노년단체 육성 및 사업 지원, 신노년정책자문단 구성 ○ 어르신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서울형 공공일자리 확충, 민간분야 어르신 적합 일자리 발굴 기능 강화, 온라인 일자리 전담창구 운영 ○ 새로운 일자리 발굴(어르신 복지와) - 시니어클럽 및 사회적 기업 확대, 민간도농일자리 교류사업 지원, 어르신 이색일자리 발굴
	복지건강실 업무현황	○ 어르신 일자리 사업(어르신 복지와) - 국·시·구비 매칭 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시장진입형/인력파견형 외 - 국·시비 매칭 등 일자리사업 ○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매점 우선 임대 (장애인복지정책과)

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변형

(5) 여가·문화 분야

서울시의 노인 여가 정책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등 노인들의 개별 특성과 다양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맞춤형 여가, 건강증

진, 사회적 지지망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이 필요하며, 더불어 심리적 및 지리적 배려를 통한 접근성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29쪽).

[표 4-5] 서울특별시 노인 여가문화 분야 사업

구분	근거	사업명
여가문화 분야	서울시 어르신종합계획	○ 어르신 여가문화 활동지원 강화 - 어르신 동아리 활성화 지원, 신노년문화 프로그램 확대 실시, 종묘·탐골공원 문화 업그레이드 ○ 경로당을 지역사회 열린 공간으로 전환 - 경로당활성화 지역협의체 구성, 경로당활성화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 어르신 존중하는 문화 확산 - 사회공헌 어르신·단체 발굴 및 시상, 대중매체 고령친화방송 가이드라인 개발 ○ 손자, 손녀와 소통지원 -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 세대융합 문화예술 활동 지원
	복지건강실 업무현황	○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지원 ○ 어르신 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 경로당활성화 종합지원 계획

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변형

(6) 연금제도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 인정액 930,000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 없는 가구) 또는 1,488,000원 이하(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월 20,000원에서 202,600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부부가구는 월 40,000원에서 324,160원까지 지급 중이다.

2_서대문구·마포구의 노인복지사업

1) 구 차원의 복지 사업

서대문구와 마포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각 구의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서대문구와 마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서대문구와 마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크게 건강진단사업, 결식노인무료급식 지원사업, 기초연금,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일자리 사업,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지원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 등이 있다. 위의 사업들을 서울특별시의 노인 복지 정책 분류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서울특별시 분류에 따른 자치구 복지사업 분류

서울특별시 분류	구내 노인복지사업(서대문구 · 마포구)
건강 분야	노인건강진단사업
	장기요양보험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전 분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돌봄 분야	노인돌봄지원서비스
	서울재가관리사사업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
	주야간보호서비스(데이케어센터)
일자리 분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여가·문화 분야	노인복지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1) 건강 분야

가.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노인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 대상은 각 자치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

권자 및 저소득(차상위)노인 중 노인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자이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노년 생활에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일부 노인들의 지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노인들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원됐던 노인부양의무를 국가가 사회적 의무로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보험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된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은 지표화된 장기요양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에 따라 대상자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 신청 가능하며,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이 신청할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이 신청할 수 있다.

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바탕으로 급식 및 요양, 그 밖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④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60세 이상의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이어야 한다.

②, ③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소비용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④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비용의 전액을 입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 분야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이 살기 편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어르신종합계획의 안전 분야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노인복지주택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마포구는 ‘상암 카이저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230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돌봄 분야

가. 노인돌봄지원서비스

노인돌봄지원서비스는 개인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사이면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과 여민복지협동조합, 징검다리요양센터에서 노인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2015년 7월에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를 개원하였다.

나.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과 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거나 특별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1급~3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활동 지원, 가사지원, 사회회, 우애, 상담서비스 등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 사업 역시 저소득 노인 또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는 제한을 둔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무료급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경로식당 이용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식사 배달, 마지막으로 밑반찬 배달이 있다.

경로식당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식사 배달과 밑반찬 배달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을 우선 선정한다.

라. 주야간보호서비스 (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들의 건강상태 유지 및 건강기능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용대상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등급~5등급)나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등외자(기초수급권자, 일반노인, 질환자)이다.

데이케어센터는 자치구 노인복지 관련 부서에 설치를 신고하는 형태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가족들을 대신하여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포구의 데이케어센터는 10곳, 서대문구의 데이케어센터는 9곳이다.

(4) 일자리 분야

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서대문구 및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인 사회활동 사업의 유형으로는 지역형(구공익형, 구교육형, 구복지형), 전국형(자원봉사활동), 취업·창업형(인력파견형, 시장형)이 있다. 지역형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일자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장애인돌봄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9개월 동안 월 200,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국형은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 말벗 활동 등을 하는 노노케어를 들 수 있다. 노노케어는 9월 또는 12개월에 걸쳐 월 200,000원을 지원받는다.

취업·창업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관련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거나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창업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시험감독관 파견 사업이나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수요처나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노인 사회활동의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중앙정부 및 자치구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들 수 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먼저 수행기관에 참여를 신청한 뒤 선정을 거쳐 계약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국형 및 지역형은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의 기준이 있으나, 취업·창업형은 만 60세에서 64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노인 사회활동은 구교육형 및 취업·창업형 사업을 제외하고 기초연금수급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이는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이나 일반 노인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 실제로 참여 가능한 기초연금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성별 및 학력, 경력 등 당사자를 빈곤에 이르게 한 외부적인 조건으로 참여에 의도하지 않았던 참여의 제한이 생길 수 있다.

(5) 여가·문화 분야

가. 노인복지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자치구는 각 기관에 위탁 등의 형태를 통해 여가·문화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포구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아현실버복지관, 우리마포복지관, 용강노인복지관이 있으며, 서대문구에서는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구립창천노인복지센터, 구립연희여가복지시설, 구립북가좌2동복지센터, 구립인왕어르신복지센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경로당

경로당은 지역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마포구는 2015년 현재 총 147곳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서대문구는 97곳이 운영되고 있다.

다. 노인교실

노인교실은 노인에게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그 외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마포구는 2015년 현재 서울노인교실 등을 포함하여 총 16곳의 노인교실이 운영 중이다. 서대문구는 2015년 현재 홍제노인교실을 포함한 총 10곳의 노인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3_충현동·북아현동·아현동의 노인복지시설

1) 충현동·북아현동 노인복지시설

(1)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북아현동·충현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어르신무료급식지원 사업 및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사업, 정서지원사업, 여가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미소보호도우미와 노노케어 및 인력파견이 주된 내용이다.

(2) 경로당

경로당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을 하는 데 이용되며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및 기타 여가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충현동 및 북아현동에 있는 경로당은 총 7곳으로 충현동이 4곳, 북아현동이 3곳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충현동·북아현동 경로당 현황

번호	행정동	시설명	소재지
1	충현동	미근경로당	미근동
2		미동A경로당	충정로3가
3		서북경로당	북아현동
4		능안경로당	북아현동
5	북아현동	북아현동경로당	북아현동
6		동심경로당	북아현동
7		두산A경로당	북아현동

주: 세대문구 자료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레크레이션 등을 통한 취미활동과 운동으로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충현동 및 북아현동에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총 2곳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충현동·북아현동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번호	행정동	시설명	프로그램
1	북아현동	아현노인교실	레크레이션(노래교실), 무용교실, 한글교실, 서예교실, 안마교실 등 5개 프로그램
2		아현동성당노인대학	성서쓰고 그리기, 노래와 율동, 종이접기, 뜨개질, 양초공예, 미술심리치료 등 6개 프로그램

주: 서대문구 자료

(4) 주야간보호서비스 (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들의 건강상태 유지 및 건강기능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가족들을 대신하여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충현동 및 북아현동에는 현재 1개의 데이케어센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충현동·북아현동 데이케어센터 현황

번호	행정동	시설명	비고
1	충현동	효림데이케어센터	

2) 아현동 노인복지시설

(1) 아현실버복지관

아현동에는 있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먼저 아현실버복지관이 있다. 아현실버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크게 상담사업과 평생교육사업, 기능회복 및 복리후생사업, 재가복지사업과 지역복지사업을 들 수 있다. 아현실버복지관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로당

마포구는 앞서 경로당이 총 147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현동은 공덕동

이 존재되어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는 어렵지만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총 3곳의 경로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0] 아현동 경로당 현황

번호	행정동	시설명	소재지
1	아현동	아현1동경로당	아현동
2		공덕자이(아)경로당	아현동
3		아현2동경로당	아현동

주 : 마포구 자료

(3) 주야간보호서비스 (데이케어센터)

2015년 현재 아현동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는 총 2곳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아현노인복지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1] 아현동 데이케어센터 현황

번호	행정동	시설명	비고
1	아현동	아현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사업 제공
2		아현실버데이케어센터	

주 : 마포구 자료

3) 연구 대상 지역 노인복지시설 현황분석

지금까지 연구 대상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이 2곳, 데이케어센터가 3곳, 경로당이 10곳, 노인여가복지시설이 2곳으로 나타났다. 수치로 표현된 것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관 대다수가 돌봄 및 여가·문화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 지역의 저소득층 노인 비중에 비해 건강분야 및 안전분야의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노인은 건강 관리 등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위한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지원하는 곳은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 1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곳은 서대문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 소속된 저소득층 노인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치구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05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

- 1_진입 1: 나이듦과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 2_진입 2: 지역상권의 변화와 기존상권의 쇠락
- 3_수집: 쓰레기더미를 헤치는 사람들
- 4_운반: 도로를 걷는 사람들, 밤길을 걷는 사람들
- 5_보관: 도둑질의 위험
- 6_판매: 정기적 판매와 간헐적 판매

05 |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

1_진입 1: 나이듦과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노인의 사회적 소외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다이아몬드(Diamond, 2013)는 현대적 개념의 문자해독력 및 학교 교육과 급속히 변하고 있는 기술환경을 들며, 노인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유용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인들이 하나의 집단이라고 상상해보자. 그들은 전통사회에서처럼 사회적인 지식의 창고 역할을 할 수 없다. 책과 인터넷이 그들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게다가 의무교육이 정착하였고, 노인은 마을의 교사 자리에서도 밀려났다. 더군다나 노인 집단이 사회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던 마을이 사라졌다.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비슷한 나이나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더 이상 마을은 노인과 청년과 아이가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던 공간이 아니다. 더욱이 끊임없이 변화하여온 기술환경은 노인의 지식을 구닥다리 지식으로 치부하게 하였고, 노인들의 쓸모가 사라졌다.⁶² 현 세계에 맞추어 노인을 위한 새로운 삶의 환경을 고안해 내야 할 것이다.⁶³

그렇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인, 특히 여성노인의 처지는 당혹스럽다. 빈곤층 여성노인은 대개 폐지를 수집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⁶⁴ “빨래”라는 뮤지컬에서 빈곤층 여성노인은 폐지가 실린 작은 손수레를 끄는 모습으로 재현되는데, 꽤나 상징적이다. 이러한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녀들의 처지이다.

나이대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 75세가 넘는 노인들은 일하기 어렵다.⁶⁵

⁶² Diamond, 2013: 350쪽 참조.

⁶³ Diamond, 위의 글: 357쪽.

⁶⁴ ‘남성노인’ 하면 ‘경비원’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⁶⁵ 김수현·이현주·손병돈, 2009: 86쪽.

현재의 산업구조는 여성노인이 일하기에 적절치 않다. 2장 4절에서 살펴본 대로 단순노무 종사자, 특히 가사, 조리, 음식에 관한 일이나 공공환경 정화(폐지수집 포함)와 같은 업무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어 “고령의 자원자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력이다. 회사 차원에서 부담 일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젊은 분들을 원한다. 경비 일도 나이가 많으면 입주민들이 꺼려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략)

- “한국 노인 애가(哀歌)…” “주운 파지 들고 면접 보러 갑니다”⁶⁶

왜 여성노인들이 폐지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악구에서 이루어진 조사(이봉화, 2011)가 나름의 답을 하고 있다. “임금노동 시장이나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빈곤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재활용품 수거노동”이다.⁶⁷

2_진입 2: 지역상권의 변화와 기존상권의 쇠락

아래 사진은 북아현동 지역에 있는 작은 규모의 슈퍼마켓의 입구 주변을 담은 것이다. 슈퍼마켓은 폐점 상태가 아니며,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이 슈퍼마켓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노인 D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만났다.

⁶⁶ 민수미, 「국민일보」, 2015년 4월 24일자 기사.

⁶⁷ 이봉화, 2011: 38쪽.



[그림 5-1] 동네가게의 한켠 (북아현동)

D는 ■ 지역에서 슈퍼를 운영한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지역형 할인마트가 2곳, 편의점이 4곳 생겨났다.⁶⁸ 손님이 줄어들자 이 여성노인은 몇 년째 근방의 박스나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어디에서 박스를 주워 오시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근방 사는 아줌마들이 “어디 박스가 나왔으니 가서 주워오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워오기도 하며, 새벽에 아침을 먹고 한 바퀴를 돌며 줍는다고 한다.

그러나 D는 슈퍼도 운영해야 하므로 한 번에 오랜 시간 가게를 비울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양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이 봐둔 곳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 해준 곳에서 주워온다고 말한다. 단번에 팔지 않고, 팔아도 되는 양이 될 때까지 가게 오른편에 쌓아두고 있다. 할머니는 양이 많을 때는 카트를 끌고 다니지만, 평소에는 그냥 들고 온다고 한다. 심야 시간이 되면, A씨는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바깥에 둔 폐지나 재활용품 등을 슈퍼 안이나 천막 안으로 집어넣는다.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곳뿐 아니라, 아현지역에서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슈퍼와 그 앞에 놓인 폐지와 재활용품 더미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특히 ■ 과 ■ 지역에서는 3곳 정도를 더 발견할 수 있다.

⁶⁸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여성이 폐지수집을 시작한 지 4~5년 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 과 ■ 지역에 편의점 (총 4곳)과 중소형 할인매장(총 2곳)이 연달아 들어오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 계기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네의 작은 가게를 하나 갖는 것은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꿈이었다. D는 꿈을 이룬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편의점이나 (기존의 구멍가게에 비해 몇 배나 커다란) 슈퍼마켓이 등장하여 잘 정리된 상품과 더 싼 가격으로 장사를 하니, 기존의 상권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D와 같은 사람들은 대응할 도리가 없다. D와 같은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도울 방법도 많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꿈을 꿀 수도 없게 되었다”는 서글픈 발견에 다름없다.⁶⁹ 아현지역뿐만이 아니다. 예전의 사당동, 요새의 신당동 등지에서도 여러 가게가 사라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이자 여성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다. 진압이 쉬운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래서다. “빈곤한 상황과 빈곤의 재생산 구조가 그녀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아직 우리는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하였다.⁷⁰

3_수집: 쓰레기더미를 헤치는 사람들

분리수거가 없는 상황을 상상한다면 암울한 문제들이 먼저 떠오른다. 곳곳에 붙어있는 광고문처럼 “자연 환경 보호”와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등에 반하는 상상이 그것이다. 적어도 분리수거는 공동의 감각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다. 재활용 산업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산업적 대응이었으며, 분리수거는 쓰레기 처리문제의 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이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간 처리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종이박스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쓰레기이자 분리수거의 대상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면 온라인 쇼핑이 늘어났다는 것과 쇼핑하러 갈 시간과 힘조차 없는 요사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비문화가 있다. 변화한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기술적 진보, 기업조직의 변화, 새로운 이론과 관점,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을 사용하는 습관, 도시 당국의 쓰

⁶⁹ 조은, 2012: 312~314쪽.

⁷⁰ 조은, 위의 책: 314쪽.

레기 수거 시스템, 재사용을 빈민층의 행위와 연관시키는 편견 등이 모두 합쳐지며” 포장 제품의 사용을 통하여 사람들은 버리는 습관이 생겼고, 청결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더 자주, 생활장소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에”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⁷¹

아현지역은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주거지역인 ■ 뿐 아니라 신축 다세대/다가구주택과 고급주택들이 밀집한 ■, ■ 지역, 상업지역들로 ■ 아현동 가구 거리, ■ 북아현동-충현동 상업지구 일대, ■ 아현시장 일대, ■ 이대입구역 상업지구 일대들이 있다.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상품이 소비되고, 쓰레기가 되어 골목에 내버려진다. 박스와 신문지 같은 폐지뿐만 아니라 업소에서 다 쓰고 내놓은 각종 플라스틱이나 금속류 통을 주울 수 있다.

이 공간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방식은 6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문전수거 방식 배출 쓰레기 수집

둘째, 상업지구의 쓰레기 수집

셋째, 재활용정거장의 쓰레기 수집

넷째, 분리수거망에서의 쓰레기 수집

다섯째, 대가로서의 쓰레기 수집

여섯째,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쓰레기 수집

첫째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내놓은 단독주택의 폐지나 재활용품 더미에서 선별하는 것(문전수거 방식 배출 쓰레기 수집)이다. 다음의 사진처럼 문 앞에 쓰레기를 버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아현지역을 1시간 정도 걷게 되면, 보통 박스를 십여 개 이상 주울 수 있을 정도다.

⁷¹ Strasser, 2010: 303~304쪽.



[그림 5-2] 쓰레기 배출의 예 (북아현동)

둘째는 상업지구의 근처에 쌓인 재활용품을 골라내어 수집하는 방식(상업지구의 쓰레기 수집)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네 지역을 상업지구로 부르고 있다(■ 아현동 가구 거리, ■ 북아현동-충현동 상업지구 일대, ■ 아현시장 일대, ■ 이대입구역 상업지구 일대).

이 중에서도 ■ 아현동 가구 거리는 “운이 좋으면”⁷² 폐지수집 노인들이 폐지를 다량으로 주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가구의 포장재나 비닐 끈 등을 주울 수 있다.

■ 북아현동-충현동 상업지구 일대는 북아현동에서 충현동까지의 오르막길이다. 이 길가 주변에는 식당과 영세한 규모의 영업장들이 몰려 있다. 이 부근 역시 주로 박스가 배출되며, 간혹 식당에서 내다 버린 알루미늄으로 된 식용유통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간장통들을 주울 수 있다. 한 식당의 종업원은 “박스를 내다 놓으면, 금세 가져갑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매번 바뀌어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 아현시장 일대는 재활용품 수거가 가장 쉬운 곳이라고 생각한 지역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았다. 이 길은 애오개역 근처에 있는 고물상을 가기 위하여 많은 노인이 지나치는

⁷² 한 가구점 사장은 “운이 좋으면”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운”이란 “경쟁자가 없으면”을 가리킨다.

공간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가장 많은 공간이다. 다시 말해 적잖은 양의 재활용품이 배출 되는 것 같지만, 폐지나 재활용품을 팔려는 노인들이 실재 없이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폐지 수집이 가장 힘든 공간 중 하나다.

■ 이대입구역 상업지구 일대는 주로 ■ 지역에 사는 여성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은 주로 ■ 지역만 가는데, 그 이유는 거리상의 근접성과 이대입구역 근방의 상업지구 때문이라고 한다. 이 지역은 ■ 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배출된 박스나 식당이나 의류가게에서 나온 재활용품이 많다. 그렇지만 ■ 지역에서 ■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꽤 높은 고개를 올라야 한다. 대개 ■ 지역에서 ■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손수레가 빈 채로 내려가지만, ■ 지역으로 돌아올 때는 손수레에 재활용품을 가득 싣고 힘겹게 올라와야 한다.

셋째는 재활용정거장을 뒤적여 재활용품을 골라내어 수거하는 방식(재활용정거장의 쓰레기 수집)이다. 마포구는 총 16개 동(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에서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현동은 수요일과 일요일 18시부터 22시 사이에 근무하며, 재활용관리사⁷³가 관리를 한다. 그러나 일부 여성노인은 재활용관리사가 없는 틈을 타 재활용정거장에 놓인 재활용품을 빼 가는 경우가 있다. 한 번의 관찰에서는, 한 여성노인이 수레를 들고 와서 묶여있는 폐지 더미를 자신의 손수레로 옮기고, 묶여있는 수거망을 풀어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73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모집 안내” 마포구청, 2015년 3월 3일.

(출처: http://www.mapo.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198&CP0000000001_BD00000002530_action=viewContent&CP0000000001_BD00000002530_atclId=BA0000291259, 2015년 8월 4일 검색결과)

: 주택가 재활용정거장과 폐지수집 노인과의 관계는 ‘자원관리사’에서 잘 드러난다. 마포구는 총 16개 동의 재활용정거장에서 ‘자원관리사’를 모집하고 있다. 마포구에서 자원관리사는 주2일 18시부터 22시 사이에 근무하며, “재활용 분리배출 지도와 같은 재활용정거장 관리”를 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각 구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로, 재활용품을 판매한 대금에 보조금 10만 원을 보수로 받는다.



[그림 5-3] 재활용정거장의 모습
(좌측 원 안은 여성노인, 우측 원 안은 카트)

넛째는 여성노인들이 분리수거망이나 쓰레기 더미를 뒤적여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수거하는 방식(분리수거망에서의 쓰레기 수집)이다. 서대문구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지만, 아현지역의 주민들은 헌옷 수거함 옆에 매여있는 재활용품 수거망에 혼합배출하고 있다.⁷⁴

분리수거망이나 쓰레기 집하장을 뒤져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일은 아현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다. 2011년 성북구 삼선동에서 최저생계비 ‘체험’을 한 국회의원 최영희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불은 켜졌는데 할머니 기척은 없다. 끌고 다니는 폐지 손수레가 없다. 한사코 말리던 할머니가 미리 혼자 가신 것 같다. 쓰레기 집하장이 위쪽이라던 할머니 말씀에 더듬어 무조건 위쪽으로 올라가 뒤지고 다녔다. 찾았다. 가로등도 꺼진 쓰레기 더미에서 할머니 혼자 일을 시작하셨던 것이다. (중략) 할머니는 폐지만 줍는 게 아니다. 우유팩, 헌 옷, 가방, 플라스틱, 박스, 빈 병 등 옛날 난지도 쓰레

⁷⁴ “서대문구의회 제178회 제2차 본회의 (2011년 7월 1일) 회의록”에 따르면 “서대문구에만 헌 옷 수거함이 약 440개에 달한다”고 한다. 헌 옷 수거함들의 설치주체는 구청이 아니다. 고엽제전우회, 지체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등의 단체들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운영하지는 않으며, 업자에 위탁하고 모인 의류를 외국에 수출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http://www.sdmcouncil.go.kr/source/korean/assembly/qna.html?mode=view&thid=45&model=1&sch=&rnum=0&page=&flag=&keyword=%BC%F6%B0%C5%C7%D4&fmcode=%BC%AD%C1%A4%BC%F8> 2015년 9월 4일 검색결과)

기장에서 골라내듯 찾아내셨다. 늦은 밤 동네 어귀에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는
집들이 내다 버린 모든 쓰레기를 다 뒤지시는 것이었다. 대충대충 분리해서 큰
자루나 바닐봉지에 담고, 밑에 박스를 펴서 깔고 잘 쌓아서 묶었다. 묶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시다.

“차상위” 그들에 가려진 고단한 삶: 최영희 의원의 ‘최저생계비 체험’⁷⁵

다섯째는 남의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폐지를 받는 경우(대가로서의 쓰레기 수집)도 있다.
한 달에 몇만 원(적게는 2~3만 원에서 5~7여만 원 정도까지)을 받고, 슈퍼나 상가를 청소
하는 경우가 있다. 청소하면서 발생한 재활용품도 노인이 수집하여 판매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지인이나 종교단체 등에서의 인간관계가 기능한다고 한다. 주로 조력자를 가진
경우에나 가능하다.

김모씨(76)는 7일 서울 봉천동 H마트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하루에 두어
시간씩 청소를 하지만 이 일로 받는 돈은 한 푼도 없다. 대신 마트에선 그날 배출된
폐지를 넘겨준다. “나이 드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서... 청소라도 해줘야 마트에 잘
보여서 폐지를 받지, 어떡해...” 노곤으로 묶은 폐지를 작은 손수레에 가득 실으며
그는 애처롭게 웃어 보였다. 7년 넘게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다른 노인들처럼
동네를 돌며 폐지를 모으지 못하는 그는 생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모씨(70)도 마찬가지다. 서울 화곡동의 한 그릇가게에서 아침마다 화장실 청소를
해주고 난 뒤 그 가게에서 나오는 폐지를 전부 받아오는 것이다. 이씨는 “이제 폐지
는 ‘줍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폐지 수거 하루벌이 많아야 7,500원... 경쟁 심해 그마저 거저 얻기 힘들어”⁷⁶

⁷⁵ 『뉴스포스트』, 2011년 7월 20일자 기사.

⁷⁶ 박흥두·박효재·정희완, 『경향신문』 2011년 3월 7일자 기사.

여섯째는 지역주민의 도움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방식이 있다.

“할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동네가 깨끗해져요. 사실 할머니들이 힘들게 일하는 건 맞지만, 널브러진 쓰레기가 없는 건 그분들 덕이지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모두 고시원 옆의 골목에다 내놓습니다. 유리병 같은 경우는 바로 앞 슈퍼에다 같이 내놓습니다.”

- 북아현동 모 고시원 사무장

“병 하나에 얼마지 아십니까? 저분들, 용돈 하시라고 병을 모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양이 상당합니다. 주변의 고객분들이 주고 가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팔지 않고 노인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 북아현동 소재 모 슈퍼 사장

지역주민들과 노인들이 자발적인 돌봄을 행한다고 볼 수 있다. 제도가 해주지 못하는 지원을 지역주민들이 대신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뒤집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녀들에게 “미화원”의 역할을 부여하며, 그/녀들이 있기 때문에 골목이 깨끗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책임전가(責任轉嫁)의 사고다. 배출자로서 자신이 가진 의무는 뒤로 한 채, 그/녀들의 돈 벌이 수단을 돕기도 하며 골목이 깨끗해진다는 생각으로 치환(置換)하는 것이다.

4_운반: 도로를 걷는 사람들, 밤길을 걷는 사람들

1) 도로를 걷는 사람들

여성노인들의 폐지 운반수단은 다양하다. 운반수단은 없음([그림 5-4]), 노인용 보행기([그림 5-5]), 유모차([그림 5-6]), 손수레([그림 5-7]), 리어카⁷⁷ 등으로 다양하다.



[그림 5-4] 별다른 도구가 없는 노인 (북아현동)



[그림 5-5] 노인용 보행기를 끄는 노인 (북아현동)



[그림 5-6] 유모차를 끄는 노인들 (망원동)

⁷⁷ 리어카는 직접 구입하지 않고, 고물상에서 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현지역은 언덕들 위에 도로와 집이 있다.⁷⁸ ■ ~ ■ 지역은 대개 언덕에 있다. 수거지역 중 하나인 ■ ~ ■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대개 평평한 곳으로 이동한다. 아현역을 기준으로 충현동까지의 길이나, ■ 지역으로의 길은 가파른 언덕으로 되어 있다. 가파른 길 때문인지, 아현지역의 운반수단은 리어카보다 가벼운 보행기나 유모차, 손수레 등이 자주 보인다. 물론, 지리적 조건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연구 기획 단계에서도 여성노인 가운데 리어카를 끄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리라 예측했었다.

운반수단의 선택에는 신체의 건강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C: 리어카로 안 가. 구루마로 이태 가가는데도. 구루마도 내 그거 가가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뿐 썩 없어서 왜 장사하는 사람도 구루마 넘덕하게 있제? 거다 없어서 땡겨. 리어카는 거서 줬는데 무거워서 못가지고 땡기겠어 나는. 그래서 인제,
B: 리어카는 인제 못해요. 우리는.

여성노인들은 리어카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리어카에 싣는 재활용품의 무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만 끌 수 있다.⁷⁹ 단지 150~250kg 정도의 리어카를 끌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골목에 주차된 자동차나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끌어야 한다. 사람이나 주차된 차와 부딪히게 되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수레나 카트 혹은 유모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밤길을 걷는 사람들

아현지역의 새벽은 여성노인들과 택시들만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여성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은 새벽녘이다. 이 시간, 아현지역에서 걷다 보면 폐지를 수거하는 여성노인들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특히나 ■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⁷⁸ 「언덕을 살아가는 사람들」(서울역사박물관, 2010)이라는 기록자료의 제목은 아현지역에 거주하고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설명하고 있다.

⁷⁹ 리어카의 무게만 50kg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리어카를 운송수단으로 선택한 남성노인은 100~200kg 정도, 여성노인은 100~150kg 정도를 운반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재활용품을 고물상에 팔아도, 10,000원 넘게 받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새벽 시간 여성노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건 택시들이다.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보행환경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5년 발표한 「2014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서대문구와 마포구 주민들이 느끼는 도시 위험도 가운데, 밤거리 위험도 지수가 서울시 전체 평균인 5.53점보다 높다. 마포구는 5.93점이며, 서대문구는 5.86점이다. 두 지역은 성동구(6.07점)와 송파구(6.04점)를 제외하고, 종로구(5.96점)와 성북구(5.83점), 노원구(5.83점), 도봉구(5.93점), 금천구(5.87점)와 함께 위험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지역이다.⁸⁰ 보행만족도는 서대문구가 5.5점, 마포구는 5.99점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인 6.12점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서대문구는 금천구(5.39점)에 이어 시민들이 가진 보행환경만족도가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⁸¹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밤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탑승한 택시들로 가득하다. 누군가는 안전을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겠지만, 여성노인들에게는 위협이 된다. 택시들은 골목을 꽤나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 여성노인들은 별다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차량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야광조끼를, 한 시민단체에서는 야광 스티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⁸² 그러나 아현지역의 여성노인들 중 야광조끼나 야광 스티커를 부착한 노인을 보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골목길의 위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생활하면서 생체리듬이 깨지는 데서 발생하는 건강의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4시간 ‘회전하는’ 사회는 사실 24시간 ‘늘 피곤한’ 삶이기도 하다”⁸³는 지적은 당연하다. 더욱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인 국제암연구소(IARC)의 지적 하나를 참조하고자 한다. 2010년 “Shiftwork that involves circadian disruption(생체교란이 유발되는 교대제)”을 발암추정 물질(Probably carcinoge-

⁸⁰ 서울특별시, 2015: 175쪽.

⁸¹ 서울특별시, 위의 책: 194쪽.

⁸² 2015년 4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아름다운재단’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오렌지 리본과 반바스티커’를 나누어주는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⁸³ 김영선, 2013: 123쪽 발췌.

nic)로 규정하였다.⁸⁴ 폐지수집은 교대제(shiftwork)와 다른 경우이지만, 생체 리듬의 교란이 ‘종양(tumours)의 발생이나 성장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만큼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회학자 심멜(Simmel)은 앞서 현대적인 삶에 대하여 “동요하고 열광하며 휴식이 없다는 특성”을 가진 “삶에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를 달아놓은 “영구기계”와 같은 삶을 지적하였다.⁸⁵ 조사 과정에서 만난 노인들의 폐지수집 시작 시간은 보통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이다. 이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거리로 나선 이들은 생활의 곤궁함 때문에 거리에 나서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불안과 위험에 동요하고 열광하며,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순간이다. 이때의 그녀들은 영구기계화 된 존재들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어느 시간에 잠을 자고, 일을 하느냐는 폐지수집에 나선 여성노인들의 빈곤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3) 몸의 경쟁

폐지를 줍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고, 청·장년층, 혹은 중국동포까지도 폐지수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유입은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사실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할아버지는 때 묻은 장갑을 다시 끼더니 10여 분 남짓 떨어진 한 슈퍼마켓 창고로 손수레를 이끌었다. 도착하자 창고 옆 한 칸에는 종이박스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다. 상인들과 이웃 주민들이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알고 몇 해 전부터 이곳에 박스를 항상 모아 놓는다고 한다.

“파지를 줍는 노인들이 많이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어. 그나마 나는 오래전부터 내 형편을 안 이웃들이 가져다 준 폐지라도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데...”

- 불경기다 보니 노인네끼리 파지 줍기도 경쟁해...’ 쪽방촌 노인의 쓸쓸한 ‘추석나기’⁸⁶

⁸⁴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AGENTS CLASSIFI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13” (<http://monographs.iarc.fr/ENG/Classification/index.php>, 2015년 9월 23일 검색결과)

⁸⁵ Simmel, 2005(1896): 27쪽.

폐지를 수집하는 여성노인은 대개 동료그룹이 없다. 즉, 자신의 편이 없이 줄기 경쟁에 나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폐지를 줍는 형편이다.

점심 든든히 먹었으니 2시부터 한 대여섯 시까지 하면 되겠다 했더니, 85세의 이 할머니는 힘이 없어 밀려서 자기 영역과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하였단다. 그래서 밤 11시쯤 골목마다 쓰레기를 들고 와 버리는 곳에 가서 새벽 2~3시까지 줍는다는 것이다.

“차상위” 그들에 가려진 고단한 삶: 최영희 의원의 ‘최저생계비 체험’⁸⁷

더구나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느리게 걷고 힘이 약해, 폐지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노인들은 힘든 점 중 하나로 빠른 남성노인을 꼽는다. 길거리에 놓인 재활용품을 발견하여도 재빠른 남성노인들이 가로채 가는 경우가 있다. 정리하자면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에게, 남성노인들은 젊은 청·장년층이나 재외동포 등이 일종의 상위 포식자와 같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볼 때 폐지수집을 통한 ‘생존’이 약자의 절박한 ‘생존’이라고 볼 수 있게 한다.

⁸⁶ 박성환, 「뉴시스」, 2012년 9월 30일자 기사.

⁸⁷ 「뉴스포스트」, 2011년 7월 20일자 기사.

5_보관: 도둑질의 위험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이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운반해 온 폐지와 운반수단을 보관하는 일이다. 폐지를 보관하는 모습을 몇 차례 관찰하였는데, 현재의 주거하는 공간에 따라 보관하는 방식이 다르다. 참고로 운반수단도 보관대상에 포함된다.

보관방법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벽이나 담 근처에 폐지 포장/보관

둘째, 현관 입구에 포장/보관

셋째, 건물 내 자투리 공간에 보관

넷째, 집 근처에 운반수단 그대로 보관



[그림 5-7] 집 바깥에 폐지를 보관한 모습

첫째는 집 바깥 벽이나 담 근처에 폐지를 보관한다. 이는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천에 대비하는 목적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바스락 소리가 나는 비닐로 폐지를 모두 덮어 놓는다. 어떤 경우에는 비닐로 덮는 경우도 있고, 고무밴드로 팽팽하게 묶는 경우도 있다.

둘째는 현관 입구에 폐지를 보관하기도 한다. 이때는 건물의 주인이나 주민들의 명시적인 동의 혹은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5-8]).



[그림 5-8] 입구 보관 (북아현동)



[그림 5-9] 자투리 공간에 보관한 모습 (북아현동)

셋째는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하여 자투리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그림 5-9]). ■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노인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녀는 ■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재활용 자원을 수거하는데, 수거 물품은 대개 종이상자나 신문지나 헌 책 등이다. 그리고 간장통과 같은 플라스틱통과 스티로폼류도 일부 수거하여 왔다. 그녀의 자택은 ■ 지역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인데, 플라스틱통과 스티로폼류와 폐지 더미를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건물 내부 계단 아래에 있는 빈 공간에 보관하며, 종이상자는 노끈으로 묶어서 건물 외벽에 쌓아두고 그 위에도 딱 차 있는 일반 쓰레기봉투를 올려 놓았다.

자투리 공간을 사용하는 다른 예도 있다.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계단과 담장 사이에 폐지를 보관하는 방식이다. 위의 그림은 보관 중인 폐지를 팔기 위하여 빼내는 과정 중에 찍은 사진이다.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측의 담장과 계단 사이에 꽤 많은 양의 폐지와 재활용품이 보관되어 있다. 이 여성노인은 월요일 아침이 되면, 며칠 동안 보관해놓은 재활용 자원들을 꺼내어 파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그녀가 ‘나카마’라고 불리는, 1톤 트럭을 가지고 매입하는 남성에게 판다고 한다. 월요일 아침 시간이 되면 그녀가 보관하였던 재활용 자원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다.⁸⁸



[그림 5-10] 폐지를 내놓는 과정
(북아현동)



[그림 5-11] 골목길에 운반수단과 폐지를 보관한 모습

넛째는 운반수단째로 집 바깥에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위의 그림처럼 보관을 하는 것인데, 사실 도난의 위험이 크다고 한다. 모아놓은 폐지뿐만 아니라 운반수단도 도난 대상이 된다고 한다.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폐지의 ‘보관’은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도난의 위험이 실 새 없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⁸⁸ 종이상자와 폐지는 물론이고, 에어컨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금속 파이프와 오래된 텔레비전과 나무로 만들어진 액자 등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 게다가 재활용 자원들을 비값으로 빼낼 때, 너비 2m 정도의 골목이 재활용 자원으로 딱 차서 사람들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다.

6_판매: 정기적 판매와 간헐적 판매

폐지 판매는 주로 고물상에서 이루어진다. 고물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물상 주인과의 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이다. 한 여성노인은 “그런데 한 군데 당기다가 다른 데 못 가요”라고 말한 바 있다. 거래가 정가제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고물상 주인과의 친밀도에 따라 가격이 일부 조정되기도 한다. 노인들은 노동 외에도 고물상 주인과의 관계 역시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노인은 이전에 거래하던 고물상 주인이 “할머니는 왜 여겼다 저갔다 이러는가?”라고 해서 해당 고물상에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도 한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판매 과정에서 노인들과 고물상 주인 혹은 직원과의 관계는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판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으니, 폐지판매 가격과 폐지수집 노인들의 삶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도된 기사 몇 개와 지금까지의 관찰기를 섞어 하나의 글로 재정리한 것이다.

알다시피 현재 한국의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최저임금 시급으로 5,580원을 보장받는다. 그렇지만 몇몇 노인(老人)들은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3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시급을 벌고 있다. 2012년의 10월, A(여성, 82세)⁸⁹는 오전 7시부터 서울의 인사동을 비롯한 종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웠다. 오후 4시쯤에 “카트에 폐박스와 신문을 겹겹이 싣고” 고물상에 왔다. 계량하니 48kg의 폐지였고, 모두 고물상에 팔아 3,400원(폐지 1kg당 약 71원)을 받았다. 정확히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폐지를 주웠는지는 모르지만,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아다녔다고 가정하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380원이 안 된다. 2014년의 12월, 수원에 사는 B(여성, 67세)⁹⁰는 손수레 한 대가 가득 찰 정도(약 60kg에 해당)로 폐지를 수집하는데 4,000원 정도의 돈을 번다. 2015년인 요즘도 다르지 않다. C(여성, 77세)⁹¹가 고물상에 가져온

⁸⁹ 신상목, 「'불황의 그늘'... 내몰리는 폐지 수거 노인들 “종일 주워도 점심 한 끼 못 먹어” 절규, 『국민일보』 2012년 10월 29일 기사.

⁹⁰ 박민수, 「반 토막 난 '폐지 값'에 노인들 생계 막막, 『경기일보』 2014년 12월 23일 기사.

폐지와 옷가지를 거래하니 “신문이 30kg(2,400원)”, “옷이 6kg(3,000원)”, “박스 59kg(3,540원)” 정도다. 무려 95kg에 달하는 양을 수집하고 고물상으로 운반했지만 “8,940원”을 버는 정도다. C는 하루에 한 번 고물상에 오지는 못 한다. B나 C는 언론에서 주목한 사례로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는다. 무리였지만 B나 C가 하루에 8시간 동안 노동한다고 가정하고 시급을 계산한다면, B는 500원이며 C는 1,118원이다. 환산된 이 시급은 비현실적이다. 임의로 가정한 계산에 의해 계산된 점에서 당연히 비현실적인 값어치지만, 글의 서두에서 밝힌 한국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저임금 시급인 5,580원과 비교해보면 이 비루한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비추어진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독거노인들의 월 소득 범위가 4,000원에서 2,500만 원까지 폭넓게 분포하였지만, 평균치는 445,000원이라고 한다. 이 연구는 2011년에 진행되었는데, 당시의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32,583원인 점을 고려하면 84%에 불과하다.⁹² 평균치가 아닌 소득의 중간치(median)로 본다면 390,000원이며, 최빈치(mode)는 300,000원이다. 평균치가 중간치나 최빈치보다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월 400,000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이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조사자가 노인들에게 수입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었을 때는 10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이지만, 월 소득이 얼마쯤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3.2%만이 응답하였다고 한다. 이는 고정적인 소득원이 없이 그때그때 생기는 부정기적인 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⁹³ 폐지를 수집하는 여성노인 중에서도 ‘고정적인 소득원 없이 그때그때 생기는 부정기적인 돈으로 생활하는 노인’⁹⁴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91 김정아, 「산더미처럼 폐지 쌓아 팔아도 '라면 2봉지'」, 『YTN』, 2015년 5월 11일 보도

92 조사에 응답한 독거노인 가운데 월 소득이 당시의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81%(22,965명)라고 말한다.

93 이정관, 2013: 201쪽.

94 위의 글.

부정기적인 돈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과 ‘소일거리’나 ‘운동삼아’ 폐지수집을 한다는 것을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추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이들과 달리 간헐적으로 판매하는 노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만 폐지를 판매한다고 할 수도 없는 사정이다. 예를 들면 아들이 구청에서 과장급 직원으로 일하며, 며느리가 간호조무사로 20여 년간 일하고 있는 한 80대 후반의 남성노인은 “새벽 6시경에 아침을 먹고 점심 전에 들어온다. 들어와서 맥주 한 잔에 점심을 먹고, 또 저녁을 먹고 한 바퀴를 돌고 들어온다.”고 한다. 이 노인의 경제적 처지는 빈곤과 거리가 있다.

폐지수집 여성노인을 비롯한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연구는 이봉화(2011)의 연구⁹⁵를 디딤돌로 삼아 시작되었다. 그러나 폐지수집 여성노인 모두가 “빈곤한 자”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수거한다는 상식을 수정해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 우리는 빈곤을 이유로 일하는 경우를 비롯해 다양한 사례를 살피며 간헐적인 판매를 하는 사람들과 “운동 삼아”, “소일거리”나 “부업”으로 한다는 사람들의 각 분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 과제를 앞에 두었다.

⁹⁵ 폐지수집을 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봉화(2011)의 조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2010년 9월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했고 11월까지 진행한 연구이며, 127명을 면접 조사했다. 응답자는 총 127명이었고, 여성이 89명(약 70%), 남성이 38명(약 30%)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1) 노령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2) 재활용품 수거가 여성에게 진입 장벽이 낮거나 거의 없으며, (3) 남성이 체면 등을 이유로 면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폐지를 수집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용돈 마련”과 “생계유지”나 “부업”, “소일거리”와 운동 삼아” 정도로 분류했다. 이 조사는 다음 8가지 항목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다[(1) 노동 패턴, (2) 건강 실태, (3) 부상 실태, (4) 경쟁 강도, (5) 수입, (6) 사회적 욕구, (7) 복지 실태, (8) 주거 실태. 각 항목에 대해 바지런히 정리한 편이지만,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새롭게 조명해야 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06

‘지원의 필요’가 가진 양면성

- 1_ 참여자 소개 및 연구 방법
- 2_ 경험을 바탕으로
- 3_ 빈곤함과 빈곤하지 않음이라는 차이
- 4_ 빈곤과 복지에 대한 인식
- 5_ 소결

06 | ‘지원의 필요’가 가진 양면성

1_참여자 소개 및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소개

글을 서술하기 전에,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눈덩이 표본추출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3명의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2명의 여성노인과 1명의 남성노인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은 각기 10년에서 5년 정도 폐지 및 폐자원을 수집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표 6-1] 연구 참여자 현황

인터뷰이	나이	성별	폐지 수집 경험	학력
A	77세	여	10년 이상	초졸
B	85세	여	10년 이상	무학
C	83세	남	5년 이상	-

A는 배우자와 함께 폐지수집을 시작했다. 동네에 있던 중간 규모의 마트에서 폐지를 가져 가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진입하였다. 이후 배우자가 죽고 마트가 사라지면서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고 성당의 도움을 받으며 폐지를 수집하고 있었다.

B는 화장품 가게를 하던 며느리를 도우며 폐지를 수집하게 되었다. 화장품 가게에서 나오는 박스들을 모아 팔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였다. 현재도 거주 중인 빌라에서 발생하는 폐지와 주변의 폐지를 모으고 팔고 있다.

남성인 C는 조금 독특한 케이스이다. 그는 중국 연변에서 생활하다 나이가 들어 한국으로 돌아왔고, 국적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다. 거주하는 지역에 정착하지마자 폐지를 수집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최근에도 새벽마다 자전거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와 폐자원을 수집하고 팔고 있다.

2)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이번 장의 작업은 인터뷰와 채록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인터뷰 및 채록은 “기존에 무의미하다고 여겨 제외되었던 일들을 다시 의미 있는 것으로 구성하는 작업(김원, 2009: 19쪽)”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경험을 인터뷰하고, 채록하여 이를 통한 사회적 맥락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작업은 녹음을 통해 진행되었다. 인터뷰 및 채록을 통해 확인된 자료의 분석은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2_경험을 바탕으로

1) 결혼하기 이전

노년 이전의 삶은 크게 결혼하기 이전과 결혼한 이후, 자식들이 장성하고 분가를 한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결혼하기 이전 이들의 경험은 ‘전쟁으로 인한 피난’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열두 살인가? 하여튼 그때 나왔어. 아버지, 부모 따라서. 나와서 거제도, 거제도에 그때 다 피난 나온 사람들이 거기 큰 배 타고 거기에서 있다가 서울로 올라온 거지[A]

A는 원래 이북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월남하였다. A의 가족이 처음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거제도였다. 시골의 허름한 공간을 빌려 가족들과 생활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녀와 가족들은 서울로 올라와 자리를 잡았다.

학교는 옛날에 중학교는 덩기다 말았어. 음. 옛날에는 중학교도 안 덩기는 사람도 많았고. [A]

나는, 옛날에는 어디 학교 시켰습니까? 시골서 살아 놓은 게로. 그래서 학교도 못나왔어요. 학교도, 우리 친정에서도 그때는 왜정시대거든요. 왜정시대라서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왕할아버지라서 “여자들 학교 시키면 안된다”하면서 맨날 풀 뜯어가 소나해와라 카고 농사를 하라 카고. [B]

A와 B는 공통적으로 학력이 낮다. A는 중학교에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었고, B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그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녀들이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적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B는 할아버지가 노골적으로 그녀의 진학을 반대했다. 여자는 집안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후술하겠지만 이렇듯 부족한 학업 경험은 인터뷰이들이 결혼 이후에도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던 원인이었다.

남원에서. 그때 내 조그만할 때인데 우리 할아버지도 의사질하고 아버지도 의사질을 했어요. 가족이 의사질 했는데 내가 의사질을 안 했어. 나는 죽어도 의사를 안 배우겠네. [C]

C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다. 남원에서 살고 있던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의사였다. 가족들은 그 역시 의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쉴 새 없이, 밤에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밤중에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삶을 봐왔기에 의사를 택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 수리를 배웠어. 수리도 하고 그런 것. 양철 가지고 만드는 것도 차 만드는 것도 그것 다 배웠어. [C]

해방과 전쟁 사이의 혼란기에서 C와 C의 가족은 연변으로 떠났고, 이후 C는 자동차 수리 기술을 익혔다.

2) 결혼의 경험

여성 인터뷰이들에게 있어 결혼은 삶에서 가장 큰 경험 중 하나였다. 특히 여성노인들에게 결혼의 의미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인터뷰이들은 결혼을 하고 정든 가정을 떠난 뒤,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공간으로 타의적인 이동을 하게 되었다.

아, 시집도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강제로 해 싸서 그리 갔는거야. [B]

인터뷰이들의 결혼 경험은 현재의 일반적인 결혼 경험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들에게

결혼은 좀 더 갑작스럽거나 강제적이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해군에 저 쫓병 들어가지고 쫓병 했을 때 이제 신병으로 해군 드가가지고 다 훈련받고 다 되가 해군 인제 됐는데 그때 인제 장개[‘장가’의 사투리] 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어무이가 인제 내가 일 잘한다고 우리 동네하고 시집동네하고 등 너머거든요. 시골에는 항상 시골장이 있잖아요. 1주일마다 있는 거. 고리 다니시면서 내가 진짜 일을 잘 했거든요. 인제는 일도 못해요.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일 잘한다고 그래 시집가가. [B]

B가 갑작스럽게 시집을 가게 된 이유는 매우 단순했다. 일을 잘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은 농사일이나 집안일 등일 것이다. 그렇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시댁과 B의 어머니가 양가 자식들을 서로 결혼을 시키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어쩌면 당시에는 이 선택이 합리적이었을 수도 있다. B의 남편은 해군이었고 당시는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젊은 남성들이 흔치 않았던 시대였고 전쟁으로 가난이 가득하던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서 그나마 죽을 위험이 적고 꼬박꼬박 급여가 나왔을 ‘해군’ 병사는 B의 어머니가 보기에 괜찮은 사윗감이었을 수도 있다.

제일 처음 결혼해가지고 서울역 앞에 중림성당[중림동 약현성당을 가리킴]이 있어. 그 동네 살았어. [A]

우리 큰아들, 우리 아저씨가 군인인데 진해에서 군인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또 발령이 나가지고 고거 인제 놔놓고. 아저씨는 발령이 나서 서울로 올라오시고 나 혼자 한 달인가 있다가 그래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방을 어떻게 했는지 못 얻어가지고 얻어 놓고 그래 와가지고. [B]

한편 인터뷰이들에게서 결혼을 하는 것은 기존과 다른 삶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사’였다. 인터뷰이들은 결혼을 통해 1차적으로 원가족과 분리되었다. 결혼했기 때문에 분가를 한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직업으로 서울이라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다. 주말 부부와 같은 개념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고 인터뷰이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전문적인 노동을 하던 것이 아니었기에 이들은 배우자를 따라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3) 가족에 대한 경험들

인터뷰이들은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렸다. 인터뷰이들의 가족에 대한 경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경험이며 다른 하나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의 경험이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목수를 하셨어. 목수 그래가지고 벌어서 술을 다 잡썬버려. 옛날부터 술을 좋아하셨어. 그래가지고 가정을 열었으면 애들을 잘 키워야 겠다 그런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 사셨어. [A]

또 우리 아저씨 담배, 술 잡썬지, 뭐 나 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맨날 살림도 맨날 집에서 요기 놓고 저기 놓고 요래 오래 살다 보니 세월이 다 가버렸어. [B]

인터뷰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배우자의 씹씀이로 인한 어려움이었다. 부모에게 돈을 부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술이나 담배 등에 대한 씹씀이가 큰 편이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이들에겐 사회 일선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파출부도 거의 없었다는 A의 말이 그것을 대변했다. 이와 같은 배우자의 씹씀이는 당장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노후에 자산을 깎아 먹는 결과로도 나타났다.

우리 딸이 아모레 댕기미 우리 딸이 얼마나 참 이래. 지금도 잘하지만은 넘한테도 잘하고 이래 하는게로 가서 이제 이래 돈을 많이 올려 준게로 월급도 좀 많이 주드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그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B]

반면 자식들에 대한 경험은 주로 고마움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딸은 자신을 도와 가족을 부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정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3_빈곤함과 빈곤하지 않음이라는 차이

1) 사글세와 자가의 차이

A와 B의 경험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다.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배우자의 썸썸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폐지 수집이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없과의 차이가 현재의 삶에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

남의 집. 지금도 사글세 삼십만 원. 그러니까 수급자 돈 그런 것 나오면 집세부터 내야 하잖아. 남의 집 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해가지고 보태가지고 사는 거죠. [A]

A는 배우자의 썸썸이 때문에 제대로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배우자가 죽은 지금도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과 사글세에 살고 있었다. 집이 없다는 것은 그녀가 가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로 작용하였다. 집이 없고 일정한 노동을 통한 수익이 없어서 인터뷰이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었다. 하지만 인터뷰이가 받는 기초수급은 일차적으로 집세를 내는데 사용되었다.

지금은 내 집에서 살아. 빌라라 카나 그걸? [B]

반면 B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다. 집이 있다는 것은 빈곤하지 않다는 표시이 되고 이는 그녀가 복지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 근거가 되었다. A와 B 모두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것은 동일했다. 하지만 주택 소유 여부는 사회복지 제도에서 인터뷰이들이 빈곤하다 또는 빈곤하지 않다는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다. 물론 사회복지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삶이 윤택해지지는 않았다. 수급자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은 월세로 나가고 결국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했다. 반면 집이 있어서 월세를 내지 않는다 해도 생활하는 데 드는 돈 때문에 소일거리를 해야 했다. 큰 틀에서 이들이 폐지를 수집하는 이유는 결국 비슷했다.

2) 노동과 소일거리의 차이

언급한 것처럼 큰 틀에서 인터뷰이들이 폐지를 수집하는 이유는 비슷했다. 단순히 말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빈곤함과 빈곤하지 않다는 것, 즉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폐지 수집을 하는 데 미세한 차이들을 만들기도 했다. 이는 곧 노동과 소일거리의 차이가 되기도 했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드는 행위⁹⁶⁾’를 말한다. 반면 소일거리는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기 위해 심심풀이로 하는 일⁹⁷⁾’을 말한다. 물론 소일거리가 노동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때 우리 대성슈퍼 있을 때 거기 와서 그것 좀 주워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내가 “아휴, 거기 나가서 하루종일 어떻게 있냐”고 하니깐 낮에는 자기들이 지켜주니깐 한 두 번만 리어가 들고 와서 실어가기만 된다 그래.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거야. [A]

A가 폐지 수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 근처의 주민이 폐지 수집을 ‘추선’해준 것이 일의 시작이었다. 리어카로 폐지를 수집하는 것이 돈이 되었기에 A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것을 주물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장사를 하는 가라. 박스가 좀 나오는 가라. 그걸 내가 “이걸 버리기 아깝다.”고 “고물상 어디 갔다 주면 안 되냐?” 갔다 줘도 된다고 가져와가지고 이케, 며느리가.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래 했었어요. [B]

반면 B가 폐지 수집을 시작하게 된 것은 좀 더 ‘소일거리’의 개념에 가깝다. 며느리가 장사하는 곳에서 나오는 박스를 그냥 내다 버리는 게 아까워서 스스로 고물상을 찾아간 것이

96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7544200>

97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1973900>

이 일의 시초였다. 그녀가 폐지 수집을 시작하게 된 건 주변의 도움이나 조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장애인이 집에서 가만히 먹고 노니깐. 개도 내가 시키지. 한 번씩 가서 갖다 주라고. 제일 처음에는 (애가) 구루마까지 다 버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자꾸 야단치고 이제는 고물상이다 말을 했어. (애한테) 돈을 넣어달라고. 근데 돈도 안 받아 가지고 와. 제일 처음에는. “애는 이런 애이다.” 하니 (고물상이) 돈을 (애) 주머니에다 넣어 주더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애가) 돈을 받아가지고 오더라고. [A]

시작이 달랐기에 일에 대한 적극성도 차이를 보였다. A는 배우자가 죽고 주로 도움을 주었던 마트가 없어지면서 폐지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아들까지 폐지 수집을 하게 만든 것이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다. 돈을 받아 오지 않기도 했고 구루마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A 자신의 말대로 ‘온전치 않은’ 정신을 가진 아들까지 폐지를 수집하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함이 묻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전에는 주우러 댕겼는데 주우러 댕기지도 않고 그냥 이제 슈퍼마켓 있으니까, 조그만 슈퍼마켓 있으니까 거기서 좀 나오면 모으고 우리 집안에서도 버리는 것 가져다 놓고. [B]

반면 B는 좀 더 수동적이었다. 그녀는 직접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것을 최대한 줄였고 대신 며칠 동안 모으는 것을 선택했다. 이러한 선택은 자가 소유의 집이라는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했다.

남의 집이라 쟁여 놓을 수가 없어. 그날그날, 남의 집은 왜냐하면 주인들이 절대 싫어해요. 지저분하게 하니깐. 지저분하잖아. [A]

다른 사람의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의 ‘아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A는 집주인이 아량을 많이 베풀어준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폐지를 주워다 주기도 하고 집주인이 친구들이 옷 같은 것을 버리면 행거에 끌어다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아량’은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 집주인은 자신의 집이 더러워지는 것과

폐지가 쌓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인터뷰이가 모을 수 있는 폐지의 분량은 딱 행거 한 대 분량이다. 리어카는 힘에 부친다고 해도 구루마는 끌 수 있었다. 그러나 구루마에 실을 정도로 폐지를 모으는 것은 시일이 걸리는 일이었고, 이는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결국 그녀는 행거를 끌고 매일 폐지를 모으고 파는 행동 패턴을 취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좀 내가 이제 주차장이 있으니까로 주차장에다가 모아놔.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하나씩으로 자기들 것도 자꾸 버려주고 하나씩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B]

반면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B는 그런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 폐지를 모아두었다. 물론 이런 행동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다. 그러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B와 동등한 입장이거나 세입자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그녀의 행동을 딱히 제지할 권한은 없었다.

이것은 곧 도구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B는 작은 카트를 끌고 다니는 A와 달리 구루마를 끌고 있었는데 이는 한 번에 많은 폐지를 모을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3) 남성과 여성, 성별의 차이

폐지 수집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성별의 문제에서도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섹슈얼리티’일 수도 있으며, 사회적인 ‘젠더’의 차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인터뷰이 리어카를 끌지 못하는 것은 신체적 힘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A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수집을 하던 배우자가 죽고 난 뒤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인터뷰에서 나타난 남녀의 차이는 단순히 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다른 분들은 힘이 좋으니까 모르는데 나는 이천 원 받기 힘들어. 왜냐면은 이십키로면은 천육백 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도 이십키로 가져가서 천육백 원 받아왔어. 그게 내 힘에 딱 적합해. [A]

많이 받아야 오천 원 받고 사천 원 받고 그래. 요시는 뭐 옷값도 내리고 뭐도 내렸

카드 [B]

여성 인터뷰이들이 받는 돈은 2천 원이 조금 안 되거나 최대 5천 원 정도였다. 여기서 B가 며칠씩 폐지를 모으다는 사실을 환기하였을 때 실제 여성노인들이 폐지 수집을 하면서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은 2~3천 원 수준으로 보였다.

할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한 만 원씩. 우리는 이렇게 벌어요. [C]

반면 C는 폐지 수집을 할 때마다 한 번에 1만 원 정도를 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그가 단순히 폐지만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전깃줄이나 구리 같은 폐자원도 같이 수집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가 그러한 무거운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기도 했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와 같은 신체적인 차이가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 점심은 잘 안 먹어. 아침을 늦게 먹으니깐. 아침하고 저녁하고만 먹지. 낮에는 안 먹어. [A]

여성 인터뷰이들은 점심을 집에서 먹거나 아니면 아침을 늦게 먹기 때문에 점심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은 오랫동안 집에서 생활했던 '습관'의 흔적일 수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으면 밥을 해 먹어야 하므로 식사를 집에서 할 때도 있을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과 살고 있는 A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했다.

어쨌든 비슷비슷한 시간에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행동의 반경에 제약을 두게 됨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터뷰이들은 폐지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좁은 공간에서 활동하게 되고 이러한 점이 남성보다 적은 돈을 벌게 되는 이유가 됐을 수도 있다.

점심 같은 거는 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 돈도 아니 필요하고. 거기 가서 뭐 줘요. 상품 같은 것도 주고. 또 거기 가서 밥은 거저 먹어요. [C]

반면 C는 복지관을 이용하여 주로 식사를 해결했다. 물론 복지관도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 행동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다른 인터뷰이들에 비해 좀 더 넓은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고, 굳이 식사를 만들고 차릴 필요가 없었다. 여성들은 식사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남성들은 간단하게 거리에서 해결하거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적 힘의 차이와 더불어 이러한 행동의 차이, 그리고 삶의 경험이나 가족에서의 위치에 따른 행동의 차이가 폐지를 수집하는 데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4_빈곤과 복지에 대한 인식

1) 가난은 개인의 잘못

연구참여자들은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이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시대적 상황과 여성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인식이 그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했다. 하지만 인터뷰이들의 생각은 이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였다.

좀 애겨 쓰면 사는데 벌어서 팍팍 쓰니까 모자라니까 도둑질도 하고 그러지. 남편이 벌여오는 돈도 쪼개 쓰면 써. 그런데 요즘들은 전부 외식을 하고 백화점 당기고 하니깐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지. 옛날엔 그렇게 살았나들? [A]

A는 연구대상자 3명 중 가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요즘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개인의 잘못’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다. A의 인식은 자신의 경험에서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복지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그런 것 없다가 뭐든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막 배가 고파도 배고파 하면서 살았지. 지금 노인들은 얼마나 편하게 잘 사노. 돈 주지, 쌀 주지, 없으마 다 [B]

B의 인식도 비슷한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지극히 가난했던 시대에 살았고 빈곤이 당연시되었던 때였다. 그리고 빈곤은 나라가 해결해줄 수 없고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문제였다. 이는 결국 A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 국가의 지원에 대한 고마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터뷰이들은 기본적으로 빈곤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닌 삶의 경험에서 나온 인식일 가능성이 컸다. 인터뷰이들은 국가가 가난을 해결해주지 못했던 시대에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다. 이후 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사이 군부 정권을 거치면서 국가가 발전하였고, 이 시기에 표면적으로 빈곤이 완화되는 경험을 했다. 강력한 정부의 주도 아래 국가가 발전하는 모습은 국가 또는 정부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되었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지원, 즉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도 여기에서 기반을 두게 되었다.

나는 돈은 안 내. 내 국가에서 얼마나, 병원비 혜택받는 것도 큰돈이죠, 감사하죠. [A]

인터뷰이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지원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를 시혜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에 ‘만족’하고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난 안 바라. 난 지금도 안 줘도 쫓아가서 왜 안 주냐. 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벌지를, 안 벌어서 고생하는 건데. [A]

나도 그래요. 돌려 카기도 싫지만은 또 주지도 않고. [B]

가난은 개인의 잘못이고 국가의 지원을 더 바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인터뷰이들의 말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인터뷰이들에게 사회복지지는 아직 ‘권리’가 아닌 ‘시혜’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에 복지 지원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자 부끄러운 일이 되기도 했다.

난 저기 복지관에는 안 가. 나오라 그래. 나 수급자니깐 가서 그냥 먹으면 돼. 난 집에서 먹어. 난 미안하고 거기까지 가서 밥 한 그릇 먹으라고 그게 싫어서. [A]

가난을 벗어나고자 했던 개인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수급을 받는 것은 감사함이자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A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미안해하고 마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국가 잘 만나서 쌀도 갖다 주지. 먹는 채소도 갖다 주지. 어떤 때는 병도 거둬봐주지. 얼마나 좋아요. [C]

한편 조금 다른 이유에서 사회복지 지원에 고마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C는 다른 인터뷰이들과 배경적으로 매우 달랐다. 이 때문에 다른 인터뷰이들과 같은 맥락에서 그의 말을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주민, 재중동포라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인터뷰이의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에서 C의 경험은 한국이 자신을 받아주었다는 고마움과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사적 도움에 의지

인터뷰이들은 국가의 지원, 즉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은 이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지원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고 당연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오랜 세월 공무원이 어려움의 대상이었던 시대적 경험의 뒷받침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뷰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적인 도움이었다.

성당에서 전화가 와. 1주일에 한 번. 두 주일에 한 번씩 종이 가져가라고. 이제 주보 같은 것이 나오니까. [A]

사적인 도움은 교회 및 성당 등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이들에게 종교는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었다. 그 도움은 폐지 수집 활동에서도 나타났다. A가 다니는 성당에서는 일정한 기간마다 폐지를 수거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이를 통해 A는 평소보다 1~2천 원 더 소득을 얻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성당 교우네 집에 가서 그 집 애기를 내가 한 8, 9년 키웠어. 그러가지고 나를 알잖아. 같이 성당에 나가고 하니까. “할머니 우리 방이 있는데 오실래요?” 그러더라고. 지금 가서 2007년도 가서 지금까지 살아. [A]

또한 도움은 단순히 성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성당 안의 인적 네트워크

가 이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A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무허가로 살고 있는 집이 철거되고 난 이후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당 교우들의 도움을 받았다. 물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혜의 의미가 아니었다. A는 도움을 준 교우를 위해 돌봄노동을 제공했다. 이는 단순히 자선이 아닌 유·무형의 거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성당의 인적 네트워크 이외에도 인터뷰이들의 사적인 인적 네트워크는 그들의 삶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A가 폐지 수집을 하게 된 계기 역시 주변의 권유가 있어서였다. 또한 인터뷰이들이 폐지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주변인들의 도움을 주는 모습도 들 수 있었다.

농협에는 자기네가 모아가지고 어디다 말을 하면은 누가 와서 차로 실어가. [A]

하지만 사적인 '도움'은 개인의 상황에 의지해야 한다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도움을 제공하는 개인의 상황이 변화할 때, 예를 들어 세를 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거나 폐지를 수집하던 마트가 있는 자리에 다른 마트가 들어 올 때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도움의 손길이 끊기게 되었다. 이것은 사적인 도움이 권리가 아닌 시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

5_소결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 특히 여성노인들의 삶과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위의 분석은 다수가 아닌 3명의 인터뷰이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통해 몇 가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폐지를 수집하게 된 여성노인들은 대체로 학력이 낮은 편이었다. 낮은 학력은 이들이 젊은 시절 사회적으로 질 높은 '노동'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인터뷰이들이 폐지를 수집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일 것이다.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을 단순히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경제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폐지를 수집하는 것은 3명의 인터뷰이 모두가 같았다. 하지만 경제적 자산의 차이 혹은 성별에 따라 폐지를 수집하는 행위가 달랐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인터뷰이들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인터뷰이들은 사회복지 지원을 받는다는 것에 고마움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국가 혹은 정부나 공무원을 대하는 인식과도 연결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인터뷰이들이 택한 것은 바로 사적인 도움이었다. 사적인 도움은 종교나 그 안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또는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물론 이들은 도움을 받는 대신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암묵적인 유·무형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쓸모없고 누군가를 시키게 되면 비용이 드는 폐지를 수거해 가는 것, 얽혀살게 된 집에서 집주인의 아이를 돌보는 것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의 상황 변화에 따라 사적인 도움은 갑작스럽게 끊길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A에게 폐지를 제공했던 마트가 사라진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07

정책 건의

07 | 정책 건의

서울특별시 2014년 4월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은 102개 사업을 통해 말 그대로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확보하겠다는 시도로 선언적 정책이며, 실천적 정책이다. 사업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틀로 나뉘어있다. 그러나 “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하며 “통계치가 없어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은 지표의 타당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⁹⁸ 무엇보다 여기에서 “지표”를 삼을 대상에 대해 되물어야 할 것이다. 이 지표는 “제각각인 불행한 가정의 모습”을 돌아본 결과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행복한 가정”을 발견하길 기대해야 한다.⁹⁹

기존의 법률이 제약되는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복지에서 역차별이 발생하는 지점은 서울시가 지적한 대로 “중앙정부의 복지기준 평균”과 “서울 내부의 복지기준 평균”의 차이가 생겨나 중앙정부의 평균치가 서울시민에게 불합리하다는 것에서 시작할까? 한 번 곱씹어 볼 지적이다. “대도시 서울”¹⁰⁰이 떠안은 역차별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민복지기준은 대도시의 21세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방자치정부의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한 시도이다. 소득(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 주거(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 돌봄(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 건강(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 교육(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이라는 ‘기준’이 올바르게 세워지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폐지수집 여성노인에 대한 정책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98 서울특별시, 2014c: 29쪽.

99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다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다 제각각이다”에서 따온 표현이며, 『안나 카레리나』(레프 톨스토이, 1877)에 적혀 있다.

100 서울특별시, 위의 책: 36쪽.

첫째,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실태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에게 시급한 것들은 (1) 이동 상의 안전 강화, (2) 공동 수거집단의 구축, (3) 재활용 자원의 보관 안전성 확보, (4) 판매 시 유동적인 가격의 문제, (5) 건강의 문제, (6) 일자리 정책의 필요 등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은 (1) 이동 상의 안전 강화, (5) 건강의 문제, (6) 일자리 정책의 필요 등에 국한되며, 이 경우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야광조끼와 이동이 용이한 손수레를 보급하는 것이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라 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이동의 문제와 수거, 보관의 문제, 가격의 유동과 같이 노동조건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폐지수집 여성노인을 제도권으로 포섭해야 한다. 더 이상 이들을 비제도권 영역에 머물게 하서는 안 된다. 물론 재활용 정거장의 관리인 제도는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다. 관리인을 지역 자치회 등을 통해 운영하며, 폐지수집 노인을 재활용 정거장에 등록하는 방안을 우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재활용 정거장을 현행 재활용센터처럼 일종의 거래 개념이 포함되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물상과 재활용정거장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경쟁 대상이 아니라, 제도의 조정을 통해서 (비등록) 고물상을 재활용 정거장의 중간 기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재활용정거장의 관리인에게만 주어지는 보상금은 노동에 대한 급여인데, 자원보상금 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자원보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폐지 값의 최저치를 방어할 수 있으며, 여성노인뿐 아니라 노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 본다. 더군다나 고물상들과의 연계로 일종의 시세를 조정할 수도 있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겠으나, 노인 복지제도와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공적기금 조성 등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 영역에서 성인지적(性認知的)인 접근을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교육수준 차이, 노동 조건 차이 등 개인적·시대적으로 성차에 의한 삶의 맥락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정부에서 시행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 정책)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한 노인복지 정책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뿐 아니라, 돌봄노동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M자 형태의 생애주기 곡선은 여성에게 현재 소득뿐 아니라 공적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 노후 소득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공적 연금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1인 1수급'과 같은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역시 가능한 대안이라고 본다.

여성노인에 대한 고려는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차별과 켜켜이 쌓인 생애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정책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가올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정부 및 지자체 자료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통계 DB, 한국환경공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마포구청 공식 홈페이지

서대문구청 공식 홈페이지

서울시통계 DB, 서울시청

월별 「정례간부회의자료」, 서대문구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통계청, 2012. 『2011 고령자통계』.

통계청, 2013. 『2012 고령자통계』.

폐기물관리법

- 언론 보도 자료

「경기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노컷뉴스」, 「뉴스포스트」, 「뉴시스」,

「데일리안」, 「동아일보」, 「매일경제」, 「오마이뉴스」, 「울산매일」,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한라일보」, 「KBS」, 「SBS 뉴스」, 「YTN」

- 단행본 및 연구자료

고도원, 1990a, “마포구/삼개 새우젓 장수의 고향”, 「한국의 발견: 서울, 뿌리깊은나무: 198~207쪽.

기후환경본부, 2013, 「세계제일의 재활용도시 만들기 Master Plan」

김동한, 2015, “국내 제지산업의 전망 및 업체 실적 분석”, 「하나 산업정보」 15,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미혜, 2008, 「한국노년학의 복지 분야 연구동향」, 「韓國老年學」, 28(4): 733~752쪽.

- 김수현·이현주·손병돈, 2009, 「한국의 가난: 새로운 빈곤, 오래된 과제」, 한울아카데미.
- 김영선, 2013, 「과로 사회」, 이매진.
- 김현경·이건욱, 2008, 「아현동 사람들 이야기」, 국립민속박물관.
- 경인지방통계청, 2014, 「2014년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경인지방통계청.
- 류도암·문미경, 2014,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정책개발연구」 14(1): 27~51쪽.
- 박미정, 2010,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일상생활연구”, 「韓國保健社會研究院」, 30(1): 62~91쪽.
- 변우전·황운원, 2012, “입법과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변화 연구: 제17대, 18대 국회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7(2): 65~104쪽.
- 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 뿌리깊은나무, 1990b, “서대문구/연세대학교와 이화 여자 대학교가 이룬 대학촌”, 「한국의 발견: 서울」, 뿌리깊은나무: 208~217쪽.
- 새림, 2007, “파피루스의 하루”, 「작은 것이 아름답다」, 2007년 7월호: 36~41쪽.
- 서울역사박물관, 2010, 「언덕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현·여리」.
- 서울특별시, 2013, 「환경백서 2012」.
- 서울특별시, 2014b, 「서울시가 마련한 어르신 정보 꾸러미」.
- 서울특별시, 2014c, 「서울시민복지기준」.
- 서울특별시, 2015,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보고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a, 「서울시 고령1인 가구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b,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석재은, 2013, “한국의 노령여성은 왜 특별히 가난한가?: OECD 국가들의 비교분석에 근거하여 노령효과인가 젠더효과인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61~102쪽.
- 손정목, 1998, “노인이 바라는 도시정책”, 「도시문제」33(352): 24~27쪽.
- 안지혜, 2014, “생계형 폐지원 수거노인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개발”, 「디자인융복합연구」 13(2): 231~244쪽.
- 이경관, 2013, “서울특별시 독거노인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3: 191~211쪽.
- 이현주·안기덕, 2013, “폭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에 관한 연구”, 「保健社會研究」 33(2): 33~62쪽.
- 이혜경, 2002, “한국의 여성빈곤과 공공부조 및 여성복지 서비스 정책”, 「젠더와 사회」 1: 129~163쪽.
- 이혜경, 2011, “복지국가의 재편과 젠더: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2011 춘계 한국여성학회 자료집」.
- 임인숙, 2013, “중·하층 중년여성의 경제활동과 건강자원”, 「한국여성학」 29(2): 143~187쪽.

- 은수미 의원실, 2012, 「재활용 협동조합과 녹색일자리 정책의 모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유기영, 2015, 「서울시 폐기물관리체계 A에서 Z까지」, 서울연구원.
- 윤수중, 2002, “넙마 공동체의 성격과 그 변화”, 「민주주의와 인권」 2(1): 175~212쪽.
- 윤수중, 2013, “넙마주이와 국가”, 「진보평론」 56: 265~296쪽.
- 윤초창, 2015, 「주민참여형 자원재사용·재활용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이봉화, 2011,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개선 방안”, 「월간 복지동향」 148: 38~45쪽.
- 장미혜, 2012,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IV): 여성노인의 안전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젠더리뷰」 28: 79~80쪽.
- 장미혜, 2013, “여성노인의 빈곤원인에 대한 생애사적 규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12: 443~458쪽.
- 전경숙·장민희·정태연, 2008, “한국사회 노년 후기 여성의 삶의 재평가와 자아통합”, 「韓國老年學」 13(2): 275~292쪽.
- 전재경, 2008, 「산업구조 전환과 자원순환 촉진 법체계의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욱, 2009(2008),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 조길성, 1992, “한 넙마주이가 말하는 쓰레기대책”, 「월간 말」 75: 200~203쪽.
- 조은, 2012,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또하나의문화.
- 조은·조옥라, 1992,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사당동 재개발지역 현장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지식경제부, 2008, 「국내제지자원 관리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
- 최옥금, 2007,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1): 5~25쪽.
- 최점숙, 2009, “노인의 빈곤 원인과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정보」 23(1): 457~476쪽.
- 최현수·류영규, 2003, “우리나라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韓國老年學」 23(3): 143~160쪽.
- 최협, 2012, 「판자촌 일가: 청계천 40년 전」, 눈빛.
- 편집부, 1977, “넙마주이들의 모임: 한국 개미화를 찾아서”, 「새가정」 262: 115~117쪽.
- 하지경, 2010, 「노인가구의 소비패턴분석: 노인빈곤가구와 노인비빈곤가구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비자가족학 석사학위논문.
- 환경부, 2007, 「자원순환사회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환경부.
- 환경부, 2008,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환경부.
- 환경부, 2014a, 「환경백서 2013」.
- 호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275~290쪽.

홍주연, 2000, “노년기 회상기능에 관한 성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117~129쪽.

Bauman, Zygmunt, 2013, Does the Richness of the Few Benefits Us All. Cambridge: Polity, 안규남 옮김,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 동녘, 2013.

Bauman, Z., Jacobsen, M-H. and Tester, K., 2013, What Use is Sociology?. Cambridge: Polity, 노명우 옮김, 「사회학의 쓸모: 지그문트 바우만과의 대화」, 서해문집, 2015.

De Beauvoir, Simone, 1970, La Vieillesse. Paris: Les Éditions Gallimard, 홍상희·박혜영 옮김, 「노년 - 나이듦의 의미와 그 위대함」, 책세상, 2014(2002).

De Silguy, Catherine, 2009, Histoire des hommes et de leurs ordures, du moyen-âge à nos jour. Paris: Le Chereche Midi, 이은진·조인미 옮김,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 인간이 버리고, 줍고, 묻어온 것들의 역사」, 따비, 2014.

Diamond, Jared, 2012, The World Until Yesterday: What Can We Learn from Traditional Societies?, New York: Viking Press, 강주현 옮김, 「어제까지의 세계: 전통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김영사, 2013.

Donzelot, Jacques, 1994, L'invention du Social, Paris: Les Éditions Seuil, 「사회보장의 발명」, 동문선, 2005.

Illich, Ivan, 1971, Deschooling Society. New York: Harper&Row, 박흥규 옮김, 「학교 없는 사회」, 생각의나무, 2009.

Lefebvre, Henri, 1968,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Paris: Les Éditions Gallimard,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에크리, 2005.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허미화 옮김, 「질적사례연구법」, 양서원, 1997.

Sennet, Richard, 1998, The Corrosion of Character: The Personal Consequences of Work in the New Capitalism. New York: W.W.Norton & Company Inc., 조용 옮김,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2004.

Simmel, Georg. 1896, “Das Geld in der modernen Cultur”, Zeitschrift des Oberschlesischen Berg- und Hüttenmännischen Vereins 53. pp. 319~324, 김덕영·윤미애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Strasser, Susan, 2000, Waste and Want: A Social History of Trash, New York: Henry Holt and Co., 김승진 옮김, 「낭비와 욕망: 쓰레기의 사회사」, 이후, 2010.

Padgett, Deborah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Thousand Oaks, Calif.: SAGE, 유태균 역,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출판, 2001.

Williams, Raymond, 1973, The Country and the City. London: Chatto and Windus, 이현석 옮김, 「시골과

도시], 나남, 2013.

Lummis, C. Douglas, 2000, 經濟成長がなければ私たちは豊かになれないのだろうか, 平凡社. 김종철·최성현 옮김,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녹색평론사, 2011(2002).

작은연구 좋은서울 15-03

페이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5년 10월 9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